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64836

2015년 2월

박사학위논문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행동과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경 영 학 과

임 아 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행동과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Youth Entrepreneurs' Competence on Entrepreneurial Behavior and Entrepreneurial Performance

2015년 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경 영 학 과

임 아 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행동과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윤 종 록

이 논문을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경 영 학 과

임 아 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임아름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남서울대학교 김 형 철 (인)

위 원 조선대학교 정 진 철 (인)

위 원 조선대학교 장 용 선 (인)

위 원 조선대학교 조 윤 형 (인)

위 원 조선대학교 윤 종 록 (인)

2014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ABSTRACT

Ⅰ. 서 론 ····· 1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1.3 논문의 구성 ····· 6

Ⅱ. 이론적 배경 ····· 8
2.1 청년 창업 ····· 8
2.1.1 청년 창업의 개념 ····· 8
2.1.2 청년 창업의 영향요인 ····· 9
2.1.3 청년 창업 지원제도 ····· 11
2.1.4 청년 창업가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 15
2.2 청년 창업가의 역량특성 ····· 20
2.2.1 청년창업가의 역량 ····· 20
2.2.2 청년창업가의 역량 구성요인 ····· 21
2.2.3 청년창업가의 역량과 창업성과 선행연구 ····· 26
2.2.4 청년창업가의 역량과 창업행동 선행연구 ····· 28
2.3 창업 행동 ····· 29
2.3.1 창업행동의 개념 ····· 29
2.3.2 창업행동의 구성요인 ····· 33
2.3.2.1 기회발견 ····· 34
2.3.2.2 기회활용 ····· 39
2.4 창업 성과 ····· 41
2.4.1 창업성과의 개념 및 측정지표 ····· 41
2.4.2 창업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 4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Ⅲ장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 45
3.1 연구모형 설계 ····· 45
3.2 가설의 설정 ····· 46
3.2.1 가설Ⅰ:청년창업가의 역량특성과 기회발견 ····· 46
3.2.2 가설Ⅱ:청년창업가의 기회발견과 기회활용 ····· 48
3.2.3 가설Ⅲ:청년창업가의 기회활용과 창업성과 ····· 50
3.2.4 가설Ⅳ:청년창업가의 역량과 창업성과 ····· 51

제Ⅳ장 연구 방법 ····· 52
4.1 자료의 수집 및 표본의 특성 ····· 52
4.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 54
4.3 자료의 분석방법 ····· 58

제 Ⅴ장 실증 분석 ····· 60
5.1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 60
5.2 상관관계 분석 ····· 63
5.3 차이분석 ····· 64
5.4 연구모형의 분석 ····· 69

제Ⅵ장 결 론 ····· 91
6.1 연구 결과의 요약 ····· 91
6.2 연구 결과의 시사점 및 한계 ····· 92

참고문헌
설 문 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 차

[표 1-1] 청년창업가의 창업동기 ····· 2
[표 1-2] 한국의 START-UP 기업 유형 요약 ····· 4
[표 2-1] 소호 및 벤처기업의 주요 성공요인 ····· 18
[표 2-2] 역량에 관한 연구자들의 정의 ····· 20
[표 2-3] Spencer& Spencer의 내적특성 ····· 23
[표 2-4] 창업가의역량이 창업성공 및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27
[표 2-5] 기회발견에 관한 선행연구 ····· 38
[표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 53
[표 4-2] 창업가 특성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관련연구 ····· 56
[표 4-3] 설문지의 구성 ····· 57
[표 5-1] 변수의 탐색적요인 및 신뢰성 분석 ····· 62
[표 5-2] 변수들의 상관관계 ····· 63
[표 5-3] 연령별 차이 분산분석 ····· 65
[표 5-4] 학력별 차이 분산분석 ····· 66
[표 5-5] 전공별 차이에 분산분석 ····· 67
[표 5-6] 창업이전의 직장 근무경험에 따른 차이분석 ····· 69
[표 5-7]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 70
[표 5-8] 요인 간 공분산(상관관계) ····· 72
[표 5-9] 측정모형의 회귀계수 ····· 73
[표 5-10]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모형 적합도 ····· 76
[표 5-11] 연구모형과 대안모형 비교 경로계수 (표준화 추정치) ····· 78
[표 5-1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 82
[표 5-13] 매개변인 효과 분석 ····· 84
[표 5-14] 가설 검증표 1 ····· 86
[표 5-15] 가설 검증표 2 ····· 8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 림 목 차

[그림1-1] 연구의 체계도 ····· 7
[그림2-1] 창업가적 활동과 국가경제성장(GEM모델) ····· 11
[그림2-2] 창업행동의 과정 ····· 32
[그림3-1] 연구모형 ····· 46
[그림5-1] 측정모형분석 ····· 71
[그림5-2] 연구모형 ····· 75
[그림5-3] 대안모형 1 ····· 75
[그림5-4] 대안모형 2 ····· 76
[그림5-5] 대안모형 1의 경로분석 ····· 79
[그림5-6] 대안모형 2의 경로분석 ····· 80
[그림5-7] 연구모형 경로분석 ····· 81
[그림5-8] 경로계수 ····· 8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The Effect of Youth Entrepreneurs' Competence on Entrepreneurial Behavior and Entrepreneurial Performance

Aruem Lim
Advisor : Prof. Jong-rok Yoon, Ph,D.
Department of Business Adminstr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Many of previous researches have focused on investigating the factors of business performance but it is rare that what is the mechanism of bringing the successful outcome of venture, especially young people.

Recently there has been long recession and the rate of economic growth has slowed. It increases the rate of youth unemployment and job creation, thus the vitalizing a venture become a critical issue for the governm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start-ups entrepreneurs is regarded as an alternative to solve the problem of the lack of jobs. Furthermore, successful business will bring tremendous increase in the number of jobs and lead development of our nation. Therefore to investigate the youth entrepreneurs would provide critical managerial and scholarly implications.

In order to collect data, a questionnaire survey of 600 young entrepreneurs who did the registration of entrepreneur was carried out, and 412 responses were collect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variables were examined with all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We suggest the alternative models and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ompare those with our main model and reveal the validity of our model.

This study investigates how youth entrepreneurs' competence can affect on the entrepreneurial performance through entrepreneurial behavior. In other words, we investigate the intial stage in which characteristics of competence influence on the discovering the opportunity and on launching the new business, and provide an insightful implication of how young entrepreneur successfully accomplish the new business.

First we analyze the influence of characteristic of young people on the discovering business opportunity and practicing startup in the behavioral stage. In Zahra & Nielsen(2002) study, they suggest that internal human resources and their competence are really important to bring a successful outcome. Our result also suggests the consistent implication that characteristics of competence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implementing the new business. We found and verified that there are important four kinds of characteristics, competence, managerial capacity, technological capacity and creative capacity, thus this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ducating young entrepreneurs to develop their competence.

Then, we provide practical solution to boost the economic activation. Through our empirical analysis, we show that capability of youth entrepreneur, that is, competence, managerial capacity, technological capacity and creative capacity significantly influence on their entrepreneurial behavior and the behavior has posi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Specifically, properties of capability affect positively on the discovering the entrepreneurial opportunity and it leads to the implementing new business. Second, implementing the new business plays a mediating role in discovering new opportunity and entrepreneurial performance.

It is consistent with Shane &Venkataraman(2000) that the process of seizing an opportunity creates a venturesome spirit and it makes youths to launch their new business.

This suggests that properties of entrepreneurs capability does not affect directly to the performance but through the discovering an opportunity and implementing business. Implementing the new business is linked with the success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of the business but both should be regarded separately and we verify the distinction in our empirical result.

This implies that young entrepreneur should first focus on discovering and implementing the opportunity for success, and then consider the way of how to successfully bring the business performance. The government should understand this casual relationship and establish right strategies in various perspectives such as educational and financial for young people to boost new business.

Entrepreneurial activity should be implemented through discovering opportunities and serious searching for business value to become a successful business.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our result to boost economic and to encourage young people to build a sound enterpris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서 론

1.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오늘날 산업구조의 변화와 세계화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청년 실업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01년 이후 경제성장률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의 2배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가 저성장 국면, 잠재성장률저하구조로 접어들었으며, 여타 선진국들과 같이 실업이 단기적인 경제성장률 제고를 통하여도 바로 완화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높은 실업률의 장기화로 인하여 청년들이 부딪히는 현실은 날로 가혹해지고 있다. 즉, 청년실업과 함께 청년 저신용자 증가가 문제가 되고 청년들은 실업을 유예하느라 미룬 졸업 덕분에 재학기간 동안 내내 단시간 근로에 내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창출의 근간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청년실업 심화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청년창업 활성화를 주된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창업가들의 열정, 창의성, 도전정신 등이 창업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젊고 유능한 청년창업가의 활동이 점차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창업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조직을 창조하는 것으로 처음 생각한 사업 아이디어로부터 수많은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사업기회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들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개인적인 능력 및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외부와의 관계, 외부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창업 의사결정을 내린다(이승배,2013). 그러나 자신이 세운 창업계획에 대해 시장조사와 사업 타당성 분석을 면밀히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창업하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한다.

창업자의 딜레마라는 책에서 “창업자란 현재 다룰 수 있는 자원에 상관없이 기회를 쫓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개인”이라는 정의에 동의하며 이들이 창업과 성장을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내리는 초기의 결정은 창업 전부터 시작해 신생기업의 모든 발전단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년 창업가의 동기 요인에 따른 의사결정은 신생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본 연구의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한 <표1-1>에 따르면, 청년창업을 하게 된 동기에 관해 살펴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23.8%로 청년 창업의 동기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청년창업가의 창업동기

창업동기	명	%
취업의 어려움	16	8.6
집안의 가업 승계	14	7.6
직장이 맞지 않아서	19	10.3
직장이 없어서	14	7.6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29	15.7
좋은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44**	**23.8**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서	27	14.6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22	11.9

출저: 본 연구자 1차 설문조사 결과임

창업 동기부여가 창업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처럼, 인적 자본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중요하게 보이는 하나의 변인인 창업가의 역량과 이전의 창업 경험이다. 이전의 자신의 회사를 차렸던 경험에서 비롯된 창업가의 관리적, 기업가적, 기술적 역량들은 통상적으로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Davidsson & Honig,2003). 지금까지 청년 창업을 연구한 대부분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청년 창업가들의 개인적 특성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김재욱, 2013), 청년창업가의 기업가 정신을 요인으로 하여 성과와의 관계(안태욱,2012), 창업가 정신과 사회적지지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김재호,2013) 등의 선행연구가 있다. 기존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창업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주로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적 관점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창업가가 국가 경제에서 수행하는 역할, 창업가와 일반 인간의 심리적 특성상의 차이점, 창업가가 창업에 나서게 되는 심리적, 사회적 동기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기회 또는 아이디어이다. 창업 기회를 발견하려면 적어도 사업 기회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기존 기업의 사업 기회에 대해서는 이미 경영학에서, 특별히 마케팅 분야에서 많이 논의가 되어 왔다. 그러나 창업에 있어서는 자세한 연구가 되어 오지 못했다. 창업 상황에서는 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개별적 상황이 매우 중요하나, 특정한 개인 창업가에게 기회가 어떻게 발생되고 있으며,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식되고 있는지가 특별히 중요하다.

Katz와 Gartner(1988)은 이러한 과정을 의도, 자원, 경계, 변화 측면이라는 용어로 특정지었고 Diochon, Menzies, Gasse(2005)는 초기 활동을 약속, 연결, 통제로 나누었다. Reynolds(2007)는 이 활동들을 사업의 유무, 생산실행, 유기적 재정구조, 개인적 기회, 기앤적 준비, 그리고 업무 혹은 생산물에 대한 집중으로 분류하였다. 연구와 연구가들 마다 다른차이점은 많지만 Shane과 Venkataraman(2000)dml 연구에 기초하여 기회 인식과 활용 과정이 확연한 발생에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 창업가의 선행연구인 Shane(2003)의 창업활동 과정에서 동기가 되어 청년창업가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회를 발견하고 기회활용으로 행해지는 창업 행동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창업성과를 보고자 한다.

또한 청년 창업가의 창업에서 역량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청년창업가의 역량차원이 밝혀질 필요성을 제기하며, 역량과 창업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도 진행하고자한다. 향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청년 창업의 경우 창업가 개인의 역량여부가 경영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므로, 청년 창업기업가를 대상으로 기업가적, 관리, 기술, 창의 역량을 구분하여 청년창업가의 역량을 파악하고 그 역량이 창업활동의 과정인 기회발견과 기회활용을 통해 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창업가의 개인적 특성(경력특성, 역량특성)이 창업행동과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창업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청년창업가의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의해 청년창업가의 창업성과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2> 한국의 START-UP 기업 유형 요약

구분	해당 업체수	46개사 대비	창업경험	해당 업체수	46개사 대비	창업기반	해당 업체수	46개사 대비
CEO연령			창업경험			창업기반		
20대	11	23.9%	학생/졸업 창업	9	19.6%	보육센터	0	0.0%
30대	26	56.5%	직장경험	39	84.8%	정책자금	1	2.2%
40대	8	17.4%	창업경험	17	37.0%	벤처/엔젤투자	10	21.7%
50대이상	1	2.2%	성공경험	14	30.4%	프렌차이징	0	0.0%
창업시기			실패경험	5	10.9%	사업유형		0.0%
2007년 이전	3	6.5%	창업/벤처 대회입상	6	13.0%	교육/출판	6	13.0%
2007년	5	10.9%	IPO경험	1	2.2%	광고	12	26.1%
2008년	5	10.9%	인수합병 경험	2	4.3%	게임/엔터테인먼트/편의	15	32.6%
2009년	6	13.0%	기술/기업양도 경험	2	4.3%	S/W(H/W) 구축	5	10.9%
2010년	25	54.3%	병역특례	7	15.2%	오픈마켓/포탈/블로그	8	17.4%
2011년	2	4.3%	공동창업	29	63.0%	전체CASE	46	100.0%

자료: 한국의 스타트업 Posted by wonkis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행동,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 자료와 문헌적 고찰, 실증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문헌적 고찰을 통해 청년 창업가의 경력특성, 역량특성이 창업행동 및 창업성과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창업가에 해당되는 만 19세 ~만39세에 창업한 청년 창업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을 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청년창업가를 선정하였다.

젊은 청년 창업가의 특성으로 경력특성, 역량특성이 창업행동과 창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본 연구에서 연구 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만19세 ~만39세 청년 창업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청년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채택한 후, 이들 요인이 청년창업가의 창업행동을 매개변수로 창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문조사기간은 2014년 3월 5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이루어 졌으며 1차 조사는 대한민국 창업박람회에 참가한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2차 조사는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600개 업체를 선정하여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2개월에 걸친 수집기간동안 총 98부(회수율 49%)의 매우 저조한 회수율을 보였기 때문에 설문지를 우편조사로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설문지 회수 방식에 대한 응답율과 참여율이 비교적 낮아 제 3차 설문조사에서는 각 지역별 청년 창업가를 직접 방문하거나 청년 창업 박람회를 등에 참가한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600개 업체에 배포하였으며, 그중 459개가 회수되었고, 412부의 유효한 설문지가 본 연구 분석에 이용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한 방법으로는 응답자로부터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자 설문지법을 적용하였다. 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방법은 SPSS Ver.19와 AMOS Ver. 17.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연구가설의 검증에 앞서 연구 개념들에 대한 신뢰성 검증과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기초분석으로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요인분석, 그리고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청년창업가의 역량특성과 창업행동, 창업 성과에 미치는 인과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간명성이 높은 최적의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대안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6개의 장으로 구성 되었다.

제Ⅰ장에는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연구 방법 및 범위, 논문의 구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Ⅱ장은 청년창업, 청년 창업가의 역량특성, 창업행동 그리고 창업성과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관련 개념연구와 이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본 연구의 실증적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제Ⅲ장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문헌고찰을 토대로 실증분석을 하기 위한 연구의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제 Ⅳ장은 실증연구의 조사 설계 부분으로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설문지의 구성과 측정, 표본의 선정 및 자료수집, 표본의 특성, 분석 방법을 기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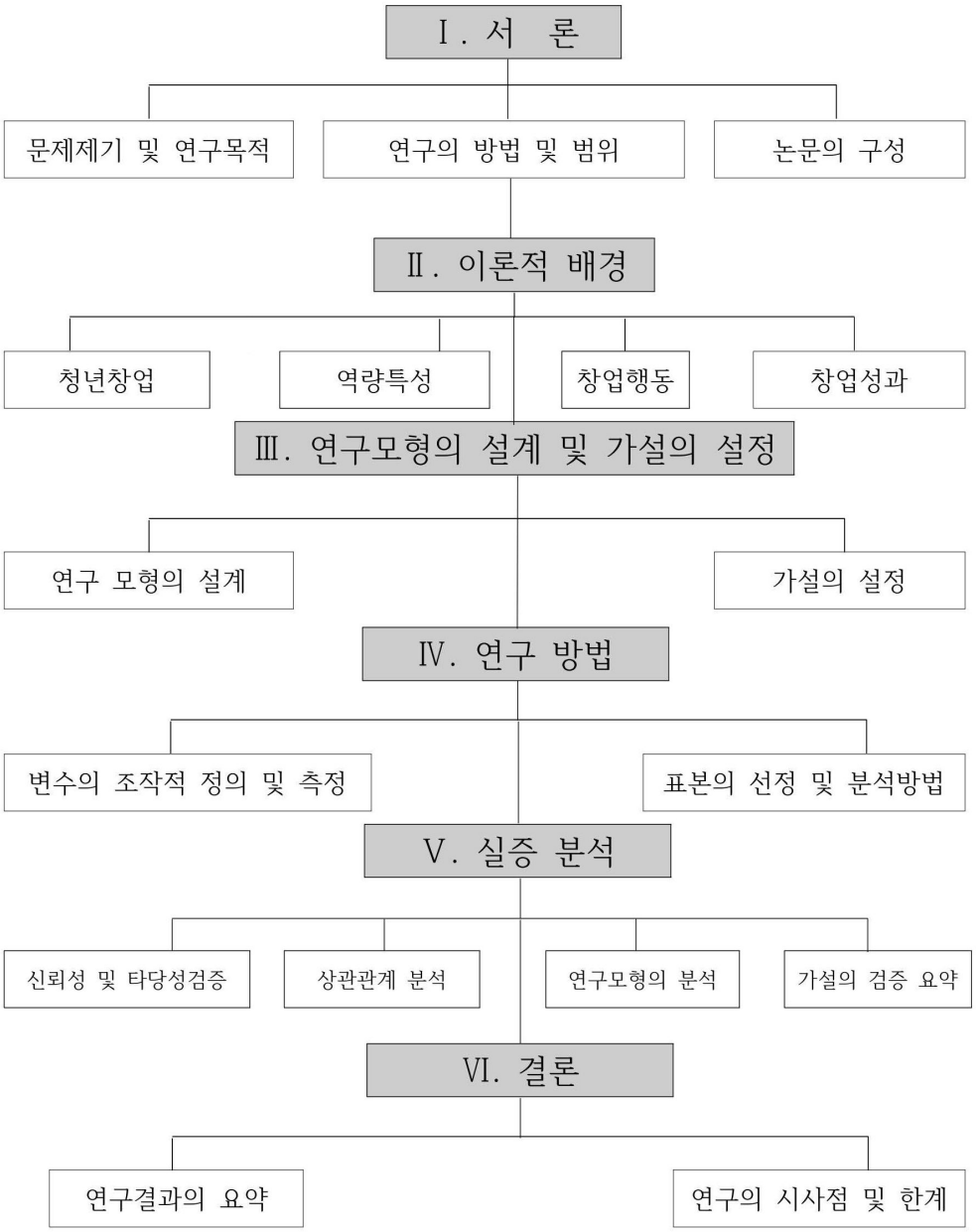
제Ⅴ장은 연구 가설에 대한 실증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해 가설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 조사 결과를 통계적 방법에 의거 분석, 검토함으로써 가설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연구 결과에 따른 해석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결론 부분으로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그리고 연구 결과의 한계 및 향후연구 과제를 기술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의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의 체계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 이론적 배경

2.1 청년 창업

2.1.1 청년 창업의 개념

청년에 대한 정의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연령상의 상·하한은 각 나라의 사회문화적·제도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나성숙, 2005).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해소 및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4년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2조 1항에서는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자"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15~29세" 라고 명시하고 있다(이지영, 2009).

국제연합(UN)은 청년을 "15~24세 젊은이" 로 정의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노동과 관련된 청년의 연령을 15 ~24세로 정의하고 있다(채무국, 2004). 한국의 경우 노동부, 통계청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에서는 15~29세의 연령층을 따로 분리하여 청년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김영희, 2004),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15~29세 연령층을 청년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15~24세 연령층 혹은 15~27세 연령층을 청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 청년 연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 노동기구(ILO)에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한 연령과 다른 이유는 군복무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이 2 ~3년 늦어지며, 재수 또는 대학 재학 중 휴학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1 ~2년 정도 늦어지는 학생이 많아 외국에 비해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가 늦기 때문이다(나성숙, 2005).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서울시 등의 정부기관들은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요건을 40세 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청년을 40세 미만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을 살펴보면 고용정책기본법 제 28조 및 동행 시행령 제21조 3항에 의하여 '신규청년실업자'를 교육기본법 제 9조에서 학교 졸업 후 또는 전문직원 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신규실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년창업의 기준을 창업을 희망하는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규정하기로 한다. 20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정의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시장에tj 경제활동이 가능한 최소 연령을 20세로 보았고, 상한 연령은 현행법에 근거하여 40세 미만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이다.

청년창업은 청년이라는 연령대와 창업이라는 노동의 상태가 결합된 단어이다. 중소기업청의 연령대별 신설법인 통계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청년창업법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창업자 수에 비해서도 청년창업 법인의 수는 극히 미미한 수준인데다 전체 신설법인 수에 비해서도 청년창업 법인 수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청년창업가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의 20, 30대의 CEO 비중이 2001년 전체의 56.2%를 차지한 것에 비하면 2008년 11.8%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청년창업의 상당부분이 서비스업을 비롯한 생계형 창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안태욱, 2012).

한국의 학생들은 높은 창업의지에 비해 전공지식과의 괴리, 도전감과 회생각오의 부족, 대학생창업지원제도의 관한 지식부족, 외적 환경의 비우호성 인식 등이 창업을 실행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청년창업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창업가 마인드의 부족이 가장 많이 지적되고 다음으로 창업관련 지식의 부족, 도전감의 결여, 관련 지원의 미비, 사회적 인프라 부족, 부모가족의 만류 등이 이야기되고 있다(이신모, 2006). 이렇듯 청년층에게 다양한 이유로서 창업이 기피 또는 회피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국가경제악화로 인한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취업의 대안으로서 또는 본인의 참신한 아이템을 통해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창업을 선택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2.1.2 청년 창업의 영향 요인

창업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창업의지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개인특성차원의 요인과 환경차원 그리고 인구 통계적 특성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개인의 창업의사결정과 행동이 창업의지, 즉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윤방섭, 2004). 의지는 미래 목표행동에 대한 전념을 나타내며 그런 행동의 실행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고 설명하는 변수이다. 행동의지는 목표행동에 대한 태도, 사회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력의 세 가지 핵심적 태도 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소의 영향을 받아 의사결정자의 주의를 목표행동에로 집중시키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변수로 여겨진다. 따라서 창업의지는 창업과 관련된 행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중요한 변수로서 창업에 대한 행위 의도적 태도를 의미하며 개인적 특질과 자기유능성 인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창업 활동에 관련한 연구들에 있어서도 창업가 개인의 독특한 성격특성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왔다.

창업과정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질로는 개인의 위험선호 성향, 통제의 위치, 성취욕구, 자율욕구, 경력지향성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러한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은 창업뿐만 아니라 생존 및 성장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후속연구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반면 환경적 요인으로는 정부정책, 사회경제적 조건, 창업 및 경영기술, 재무적 지원, 비재무적 지원, 사회적 인식 등의 요인들이 지적되고 있다(이신문,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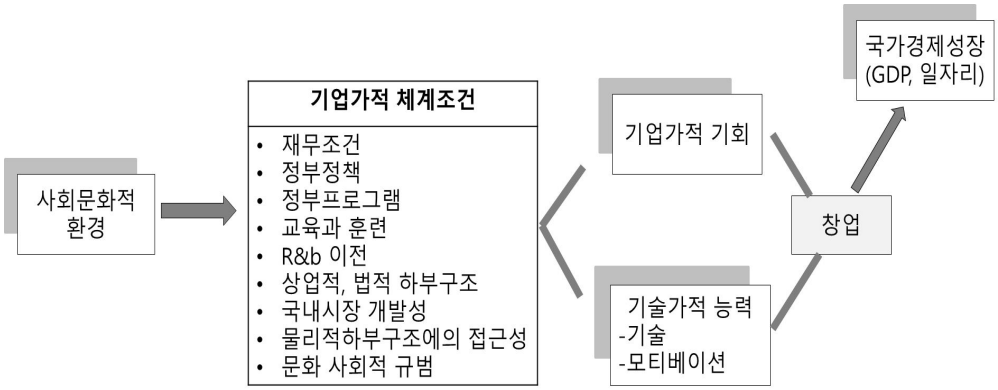
인구 통계적 특성의 차이에 따라 창업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다양한 연구들도 있는데 흔히 인구 통계적 변수들은 성별, 교육수준, 재산상태 등을 들 수 있다(윤종록, 2003).

한편, 미국의 Babson대학과 영국의 London Business School은 공동으로 주요 각국의 창업가적 활동의 정도와 내역을 상호간에 비교분석 하는 국제 창업가 활동조사(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를 1999년 이래 매년 실시하여 총 창업활동지수(TEA: Total Entrepreneurial Activity)를 조사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창업활동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제활동이 경제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국내 환경적 배경의 창업활동에 대한 영향, 창업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요인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 간에 창업가활동의 실태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GEM은 기본적으로 사회문화적 환경이 창업가적 체계여건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나아가 창업가적 활동기회와 창업가적 활동능력에 작용하여 기업생성의 정도를 결정케 하며 궁극적으로 새로운 기업의 활발한 생성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개념모델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자료: P.D. Reynolds, et al.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01 Summary Report, 2002 London Business School and Bobson Collage.

<그림 2-1> 창업가적 활동과 국가경제성장(GEM모델)

2.1.3 청년 창업 지원 제도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은 다양한 창업가활동 고취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습함으로써 자신들의 경로를 다양화하는 기회가 많다. 미국의 경우 REAL이라는 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관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청년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업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초중등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 NASE(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elf Esteem) 등의 공익기관에서도 창업가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자극들이 주어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경제과학부(BMWI)의 주도하에 기획, 실시되고 있는 도전 창업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연구소, 대학, 기업이 연계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각 대학들에서는 중소기업 창업을 위하여 창의성 개발, 창업아이디어 및 사업개발, 창업가의 자질, 기업운영 등과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혁신적인 젊은 창업가들을 양성하고 더 나아가서 제 2창업인 사업계승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EXIST가 실용화되기 위하여 종자자금 지원, 하이테크 창업지원, 대학생 창업재정지원 등을 은행 및 금융기관들과 연계하여 대학생들이 창업하는데 지장 없도록 금융 지원도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유관단체들과의 경험교환을 통한 학습과 창업관련시스템 기술과 혁신연구를 위한 학술적 연구지원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창업 아이템 개발지원 및 창업 동아리 지원, 현장견학 및 해외창업 연수지원, 대학창업 행사지원, 학생·교수·연구원 창업경연대회, 벤처창업로드쇼, 창업 강좌지원,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한 창업·경영·자금지원,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BizCool) 실시, 창업대학원 지정 및 운영지원 등 비교적 다양한 창업지원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1) 창업보육 연구

김민수(2011)는 창업보육센터의 정의를 자생력이 미약한 사업초기의 신생기업에게 적은 비용으로 공간 및 시설을 임대하고 경영, 기술, 자금, 마케팅, 인력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서비스를 통해 기업에 부족한 유·무형의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춘 기관으로 기술하고 있다. 창업 지원 사업에 있어서 창업보육센터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전국적으로 증가세에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2008년 269개에서, 2010년 279개, 2011년 286개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최재원, 2011). 전국적으로 창업보육센터가 확대된 원인은 경기부양 및 고용촉진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창업보육 사업을 추진했던 것에 기인하고 있다(김대호, 2004). 창업보육 센터가 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최종열과 정해주(2006)는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특성 및 보육서비스에 따른 기업성과를 분석하였다. 동 연구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외부환경, 창업가의 특성, 기술능력이 입주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보육서비스를 조절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외부환경, 창업가 특성 및 기술능력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보육 서비스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 창업교육 연구

창업교육은 예비 창업가 및 기존 창업가의 창업의도 및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김경애, 2007). 창업교육에 대한 대상, 목적 및 관점 등과 관련하여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길석(2007)의 연구에 따르면 Ronstadt(1985)는 창업교육의 체험적 학습방법을 강조하였고 창업교육의 범위를 창업과정에 따른 교과목 설계(순차적 학습구조를 반영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도록 전형적 과목학습 후 비정형적 체험학습)로 제시하였다.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교육의 중요성도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다. 창업가는 태어나는 것이란 관점에서 육성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전환되면서 창업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목영두, 2011).

창업 지원 요소 중 창업교육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경애(2007)는 그의 연구에서 예비창업가의 개인적 특성에 맞게 희망하는 사업의 기본 지식을 충분히 익힌 다음 창업을 하여야 창업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실무적인 시사점에서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가는 개인적 특성에서 나타난 여성의 특성에 맞게 성별, 나이, 충분한 경험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희망하는 사업의 기본지식을 충분히 익힌 다음 창업을 해야 외식업을 좀 더 이해하기위해 조리, 창업교육 등의 충분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창업의 실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용태(2009)은 창업교육에서 창업 동기와 만족도는 창업가의 창업의지 및 스킬향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여 간접적으로 창업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3) 창업컨설팅 연구

컨설팅이란 타산업의 지식 집약화와 파급 효과 및 고부가 가치 창출에 직접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지식 서비스업으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이다(전창수, 2011).

창업컨설팅은 예비창업가 또는 창업·중소기업의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연구하여 경영기법이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활동을 수행하는 행위 등이다(문우식, 2010).

창업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에 대하여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는 창업기업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업기업이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어려움은 죽음의 계곡으로 표현되는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할 때의 어려움, 다윈의 바다로 표현되는 사업화 된 기술이 다른 기술과의 경쟁을 거쳐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겪는 어려움 및 성장과 역량의 차이에 의해 비롯되는 것으로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성장정체인 성장통 등이다(문우식, 2010).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 중 직접 지원보다 컨설팅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동등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중소기업청, 2008). 창업지원사업에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컨설팅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전창수(2011)는 창업기업에 대한 컨설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소기업 쿠폰제 경영컨설팅 사업을 통한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재무적 성과에의 영향 요인을 분석했다.

창업컨설팅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창업컨설팅은 단독으로 지원하였을 경우 창업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하기는 어려우며, 자금, 교육, 입주지원 등의 다른 지원사업과 연계하였을 때 창업기업의 성과에 창업컨설팅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석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창업 자금지원 연구

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창업자금지원이 제시되고 있다(서창수, 2002). 창업자금지원과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제시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창수(2002)는 기업 성공을 위한 8개의 핵심경영요인과 28개의 세부요소를 제시하였다. 동 연구는 창업기업에 있어 보유기술, 인력, 자금 등의 요소는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지만 창업 초기의 기업에게는 매우 큰 비중으로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다. 또한 동 연구는 자금조달형태, 자금조달처, 회계투명성 등은 창업기업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제시한다. 자금 조달 방식이 자체 자금, 융자, 투자 등에 따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자금조달처도 창업기업에 있어서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다.

자금의 운영 방법에 따라 창업기업의 재무적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동 연구자들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49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시장매력도, 자원기반능력 및 자원의 전략적 사용이 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동 연구는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기업성과에 미치는 2가지 요인은 첫째, 성장률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시장점유율 성장률, 현금흐름 요인인 전환율, 판매성장율 등이다.

둘째, 사업규모인 판매, 수익률 등의 요인이다. 동 연구결과는 창업가가 인지한 시장 매력도와 인지된 자원기반능력은 창업기업의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고, 자원기반능력과 전략과의 적합성 역시 창업기업의 경영 성과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특히, 자원기반능력을 가진 기업이 원가선도 전략을 추구할 때, 그리고 자원기반능력을 가진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품질의 차별화를 추구할 때 벤처기업 성과는 강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창업자금지원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준호(2008)가 분석하고 있다. 동 연구는 국내 벤처기업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활성화를 위해서 초기 창업자금지원의 중요성 및 벤처캐피탈과 엔젤의 활성화 필요성, 기업 분석 능력제고 등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2.1.4 청년창업가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청년창업가 특성 관련 연구는 크게 배경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으로 구분된다. 이외에도 청년 창업가의 성격요인 등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창업가의 심리특성은 주로 위험감수성, 성취욕구, 내적 통제소재, 창업효능감, 모호성에 대한 인내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연구자마다 살펴보는 창업가 심리특성이 제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또한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백윤정(2005)은 창업가가 창업을 하기전에 기술이나 경영관리, 시장 등에 대한 경험을 쌓은 조직을 의미하는 배태조직경험과 성과와의 연구를 통해 배태조직의 경험이나 이전 조직에서의 경험 등이 창업가에게 창업의 성공여부, 창업과정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했다. Cooper and Dunkelberg(1987) 역시 창업가의 경영경험, 창업경험, 그리고 관련산업에서의 경험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Cooper(1986)는 나이 많은 창업가들이 젊은 창업가에 비하여 생존의 가능성도 높고, 수입면에서도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Birley and Norburn(1987)의 연구에서 성공적인 창업가들은 미국인의 평균나이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ooper and Dunkelberg(1987)는 창업가의 경영경험, 창업경험, 그리고 관련 산업에서의 경험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Stuart and Abetti(1990)는 새로이 창업하는 기업의 성과에는 창업경험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24개 기술벤처 CEO를 대상으로 성공발전에 기여하는 15가지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시장발견, 혁신성, 공격적 전략, R&D, 조직 강과, 효율성, 기업가정신, 경력 및 경험 등이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가정환경과 관련한 연구대상으로 창업가의 출생순서와 부모의 직업 등을 들 수 있다. 출생순서와 관련해서는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Cooper and Dunkelberg(1987)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창업가의 부모는 40%가 창업가인 반면, 여성창업가의 경우는 13%만이 부모가 창업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황미애(2007)는 장남이나 부모가 창업가인 경우 가족구성원은 창업가적 행동성향을 더 많이 보일 것이며, 이러한 성향은 기업활동에 반영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부모와의 관계가 개인창업가의 중요한 활동의 방향이나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1.4.1 창업동기에 관한 선행연구

창업동기요인에 대한 기존연구는 일에 대한 불만족, 사업기회의 인식, 경영자가 되고 싶은 욕구, 자유와 유연성에 대한 욕구, 재정적 독립을 위한 자금 확보의 필요성, 독립적인 사업운영, 야망의 실현, 지식과 기술의 사용, 개인적인 도전, 성취욕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기회 동기

기회를 인식한 사람들은 고용인으로부터 더 많은 옵션과 혜택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창업가가 되기도 한다(Reynols et al., 2002). Carsrud & Brannbank(2011)은 기회를 알아보고 실천으로 옮긴다. 기회를 감지한 창업가들은 새로운 것을 얻거나 성공시키기 위해 동기부여가 주어지고 다른 창업가들은 어떠한 것들이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가 설명되었을 때 동기가 주어진다(강순빈, 2012).

2) 성취 동기

창업가에게는 목적달성을 위해 성취 동기부여가 존재한다. 목적의 중요성과 그 영향은 동기부여 연구에서 더욱 집중 받게 되었다(Locke and Latham, 2004). 즉 목표는 정신적인 것을 나타낸 것으로써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개인의 자존감을 심어주어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Perwin(2003)은 목표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종종 의도와 행동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사실, 목표와 동기를 바꾸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 뒤바뀌는 상황이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Nuttin, 1984 ; Perwin, 2003).

3) 독립 동기

창업가의 창업동기 가운데 대표적인 요인으로서 독립동기를 지적할 수 있다(Reynols et al., 2002)는 창업가들의 필수 요소는 실패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 영향은 굶주림을 예방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장 중심적 동기부여는 돈과 가족을 도우려는 것이다. 생존에 집중되었을 때에는 돈이 되기까지의 기간이 긴 경우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몇몇 창업가들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기다림에 지쳐 굶어 죽게 될까 두려워서인 경우도 있다. 실패는 죽음을 뜻하거나 필요치 않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은 위험요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은 Scheinberg & MacMilan(1998)이 11개 국가의 창업동기 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밝힌 요인 가운데 5번째 동기 요인에 해당하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영국의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동기를 연구한 Birley & Westhead(1994)연구에서도 일관성 있게 지지되었다. 이 때 독립욕구란 누구의 지시를 받기보다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일과 생활을 수행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강순빈, 2012).

2.1.4.2 청년 창업가의 창업 사전 경험

창업 사전준비는 창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창업가가 성공창업을 하기위한 필요한 준비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을 '창업 사전 준비'라고 본 연구에서는 정의하고자 한다. 서울특별시(2011)에서는 창업실패의 주요 원인을 유형별 분석을 통해, 창업 준비부족(35%). 경영관리미숙(23%), 동업자와 종업원의 관리소홀(13%), 아이템 선정 실패(1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소상공인실태조사에 의하면(중소기업청 외, 2007), 과반수에 가까운 소상공인이 3개월 내에 창업하고 있고, 1년이상 2년이내의 창업 준비 기간을 갖는 업체는 9.2%, 2년 이상이 16.7% 등으로 나타났으며 창업 준비기간이 평균 8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최적의 창업 준비기간을 가진 업체일수록 경영성과가 높으며 창업 준비기간이 1~2년인 업체의 경영성과가 가장 양호하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2-1> 소호 및 벤처기업의 주요 성공요인

관련 연구	주요 성공요인	비고
벤처기업 성과의 향상	창업가의 사전 경험, 기업의 차별화전략, 해당 산업의 구조	Sandberg and Hofer(1987)
소기업에서의 성공요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열정, 사업에 대한 전력 투구 태도, 집중의지, 확실한 시장성, 세부적 경영관리	Beam and carey(1989)
신생 산업에서의 성공실패 벤처기업 프로파일	창업가의 특성, 창업과정, 경영관리와 전략적 행위	Duchesneund Gartner(1990)
창업가의 자기평가능력과 기업 성과	창업가의 사업기회 인지능력, 창업가의 경영관리 수행능력, 창업가의 조직적/대인 관계 능력, 창업가의 전문적 기술능력	Chandler and Jansen(1992)
벤처기업 성과 지표 요인	인적자원 일반 특성, 경영관리 노하우, 해당산업 노하우	Cooper et al(1994)
성공과 실패 요인 분석 모델	계획, 전문가 조정, 교육, 인력	Lussier(1995)
중소기업 창업결정 요인	시장성 요인, 기술성 요인, 경제성 요인, 정부정책 요인, 경영능력 요인	이상석(1998)
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성공 가능성 요인	창업기회 포착력, 시장 및 기술적 기회 동시포착 창업 팀(사전 공동경험, 다양성, 기술 보완력), 자금확보, 시장지식, 재무관리능력, 자금조달	남영호. 김완민(1998)
벤처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창업가의 특성, 조직 특성, 산업 환경, 전략, 자원능력	이장우. 장수덕(1998)
소호기업의 성패요인	사업아이템, 자금확보, 정보통신망 구축 및 저렴한 통신료, 정부의 지원(자금 세제), 전문인력확보, 비용절감, 홍보와 마케팅	이장우(2001)
성공벤처창업가들이 제시한 성공요인	사업에 대한 몰입, 외부환경의 분석 능력, 도전 정신, 정직과 신뢰의 기업문화,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추구	이장우(2001)
소상공인 창업성공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창업가 개인적특성(업종경험, 창업 및 경영 경험)과 심리적특성(성취 욕구, 행동통제 위치, 위험가수 성향, 모호성 수용력), 창업 자금(양과 원천, 자금조달), 경영관리 요인 (자금통제, 계획, 상담, 가격, 촉진, 입지, 품질)	정성한. 김해룡(2001)
소상공인 창업 성공요인	개인적 특성 요인, 사업이이템 선정 요인, 창업자금조달 요인, 경영관리 요인	빈봉식. 박정기(2002)

자료: 이길형(2009), “소규모 지식기업 창업성공요인에 대한탐구” 한국기업경영학회, 143-16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1.4.3 청년창업가의 창업 경험

창업경험은 성공경험, 실패경험, 창업성공 또는 실패 경험, 창업 실패율, 창업 경영 연수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통상 창업경험은 소유 경영한 사업체 수나 창업 경영 연수를 의미한다. 창업자의 경력특성과 성과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결과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Sexton & Bowman (1985)은 경력, 경험, 기술력이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Roure & Maidique(1986)는 경영자의 관련 산업에서의 근무경험과 창업 팀의 완전성 및 직무수행경험은 성과를 제고시킨다고 주장하였다.

Stuart & Abetti(1990)는 창업경험이 신생벤처기업의 성과에 중요한 것임을 밝혔고 창업가의 과거 관리경험은 신생벤처기업의 초기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Birley & Norburn(1987)은 벤처기업의 창업가와 포춘지에 나타는 일반기업의 경영자를 비교한 결과 벤처기업 창업가의 학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학력은 재무적인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Roure & Keeley(1990)는 창업팀과 경영자의 리더십을 고려하였으나 창업팀의 완전성만이 성과에 정(+)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입증하였고, 경영자의 배경적 특성이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Stuart & Abetti(1990)의 연구에서는 과거 벤처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은 성과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났으나, 일반기업에서 근무한 경험과 나이 등은 성과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은 성과와 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oper 등(1994)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 성별 등 일반적 배경과 벤처에 관련된 산업에 재직하면서 얻은 노하우 등은 성과와 정(+)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창업가의 일반적인 배경 요인들 중에 창업가의 교육정도는 창업가의 벤처기업 경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벤처기업에 투자된 초기인적자본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고봉상(2003)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환경요인으로 경쟁 환경, 산업수명주기, 공급 사슬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해당산업의 수명주기, 공급사슬 관계 변수가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2 청년창업가의 역량 특성

2.2.1 창업가의 역량

창업가의 특성과 능력이 창업기업의 초기 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창업가의 역량은 창업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Chandler&Jansen,1992). 창업가의 역량이 창업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창업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역량이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가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가 필요하다.

(1)역량의 개념

역량은 오랜 기간 많은 연구자에 의해 연구되어 왔으며 조금씩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역량에 관한 정의는 다음의 <표 2-2>와 같다. Boyatzis(1982)는 역량을 동인, 특성, 기술, 자기이미지 및 사회적 역할, 지식 등 개인의 내재된 특성이라고 주장하였다. Corbin(1993)은 특정역할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식, 기능, 가치, 태도이며 개인이 바람직한 성과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라고 주장하였다. Baum, Loche와 Smith(2001)는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과 같은 개인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효과적이고 우수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내적인 특성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Spencer& Spencer,1994).

<표 2-2> 역량에 관한 연구자들의 정의

연구자	정의
Boyatzis(1982)	동인 ,특성, 기술, 자기이미지 및 사회적 역할, 지식 등 개인의 내재된 특성
Corbin(1993)	특정역할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식, 기능, 가치, 태도이며 개인이 바람직한 성과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Spencer & Spencer(1994)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효과적이고 우수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내적인 특성.
Parry(1996)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업무성과와 관련이 높으며 교육훈련을 통하여 향상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태도의 집합
Baum 등(2001)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과 같은 개인특성.

역량의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특성 및 능력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역량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바탕으로 창업자의 역량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창업가 역량의 개념

창업가의 역량은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에 필요하고 창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필수적인 창업자의 특성이나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창업가 역량의 정확한 개념을 알아보기 위하여 창업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며, 창업가는 어떠한 특성과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 또한 창업가의 역량 중 창업의 성공 및 창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2.2 청년창업가의 역량 구성 요인

창업가역량은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기업경영과 인적자원관리와 관련해서 역량은 주로 조직이론이나 경영 전략가들에 의해 개발되어 온 거시적 개념과, 조직 및 산업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미시적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는 조직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기업전략의 관점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원천으로서 역량을 바라보고 있고, 후자는 종업원 개인의 관점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도록 하는 개인의 특질을 그 분석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는 있지만, 양자 모두 역량을 평균적인 성과를 초과하는 우수한 성과를 발휘하는 조직이나 개인이 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여주는 중요한 특질이나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역량에 대해 정의 하였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학자들이 정의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1) McClelland의 정의

McClelland(1973)는 역량을 직무기준에 근거한 효과적이고 우수한 경영성과와 인과관계가 있는 개인의 기초특성으로 정의 하였다. 기초 특성이란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인성격의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측면을 말하며,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역량이 행동이나 수행의 원인이며, 따라서 행동과 수행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직무기준에 근거하다는 말은 역량이 어떤 사람의 우수성이나 직무능력을 구체적인 준거나 기준에 의해 예측한다는 뜻이다.

McClelland의 역량개념에는 지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 외에 동기와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과거에 지능의 개념이 실제 인생에서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역량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전통적인 의미의 지능보다는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에서 실제수행으로 나타나는 역량이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하였다.

McClelland은 BEI(behavioral event interview)기법을 사용해 역량자료를 수집하였고 언어적 표현에 대한 내용분석기법을 활용해 BEI기록을 채점하였다. McClelland의 초기 역량개념은 업무성과와 관련된 광범위한 심리적 또는 행동적 특성으로 정의되었으나 개념이 정립되어 가면서, 역량은 우수성과자와 보통 성과자를 구별해 주는 지식, 기술, 능력, 기타 특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되었다. 여기서 지식과 기술은 개발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동기와 특질은 평가하고 개발하기가 어렵다. McClelland의 역량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들은 개인의 학습과 성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주었고 조직에서 활용되는 역량방법론 발전의 시발점이 되었다.

2) Spencer& Spencer의 정의

McClelland의 역량개념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Spencer& Spencer(1994)에 의하면 역량은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준거에 따른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특성이다. McClelland의 역량에 대한 기본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조직에서 특정 그룹에 대한 역량을 어떻게 개념화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① 내적 특성

역량을 “개인의 내적특성으로서 다양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며 비교적 장시간 지속되는 행동 및 사고방식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역량의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하였다.

<표 2-3> Spencer& Spencer의 내적특성

유형	정의
동기	개인이 일관되게 마음에 품고 있거나 원하는 어떤 것으로 행동의 원인
특질	신체적인 특성, 상황 또는 정보에 대한 일관적 반응성
자기개념	태도, 가치관 또는 자기상(Self-image)
지식	특정분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
기술	특정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위의 5가지 유형 중 동기와 특질은 어느 정도 타고난 요소로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특질이며, 개인의 장기적 직무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역량 유형이다. 여기서 제시한 역량의 수준이나 유형들은 창업가의 역량 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지식과 기술은 비교적 가시적이며 표면적인 특징인 반면 자기개념, 특질 및 동기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다. 지식과 기술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발하기가 비교적 쉽다.

② 인과관계

앞에서 언급한 동기, 특질, 자기개념을 통해 기술적인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역량에는 의도가 포함된다. 의도는 특정결과를 지향하는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나 특질이다. 예를 들어, 지식이나 기술적 역량의 이면에는 반드시 동기, 특질, 자기개념이 있어서 지식과 기술을 발휘하도록 추진력을 제공한다.

③ 준거 참조

McClelland가 제시하는 역량의 기본개념을 따르면서도 효과적이고 우수한 성과의 원인, 준거 기준이라는 개념을 통해 보다 구체화 시켰다. 준거 참조는 어떤 사람의 우수성과 직무능력을 구체적인 준거나 기준에 의해 예측하는 것으로 개인적 특성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행동, 직무성과, 성취동기, 목표설정, 개인적 책임, 피드백 사용, 지속적 개선, 계산된 모험 혁신이라는 뜻이다.

3) 자원기반이론 관점에서의 역량

자원기반이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술창업기업의 창업가 역량은 창업가의 창업가적 능력이나 경영능력, 과거의 창업경험 및 개인적 네트워크 등과 같은 창업가의 개인적 능력 및 사회적 배경 특성과 같은 요소에 주목하고 있다(Chandler and Hanks, 1994). 기술창업에 있어서 창업가 개인적 특성과 창업가의 역할은 창업기업의 성과 창출에 결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창업가 관련 요인을 더욱 핵심적인 경영자원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가의 역량은 기술창업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경영자원으로 다루어질 가치가 있다.

① 시장 감지 역량

다수의 기업들이 기술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도 실제 제품의 판매가 원활하지 못해 많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마케팅 분야의 연구에서는 신제품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마케팅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점을 고객가치, 가치명제 등의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가는 시장에서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향후 고객의 욕구가 어떻게 발전하였는가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통해 창업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Bird Barbara(1988)는 시장중심조직을 강조하면서 시장 중심조직의 핵심 전략적 능력은 시장지향성과 제품혁신이라 주장하고 특히 시장인지와 고객연계능력을 기업의 중요한 전략적 능력으로 파악하였다.

② 창의성 역량

창의성은 기존의 아이디어나 제품을 변형, 재구성하여 신시장을 개척하려는 창업기업에 있어 중요한 기업자산이다. 창의성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인간의 창의적 활동은 은유에 기인한다고 보는데, 창의성은 기술창업기업의 혁신활동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혁신은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는 창의적 활동인 것이다. 창의적 경영은 다양성, 자율성, 연결성, 유연성, 중첩성 등의 구성개념으로 이루어진 경영방식이다.

기술창업의 경우도 높은 창의성을 가질수록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창업가의 창의성은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창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성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서로 관점을 달리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창의성은 최근 들어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의 도출이라는 개념으로 점점 더 정립되어가고 있다(Amabile, 1996).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2012)에 의하면 개인이 지닌 창의성은 크게 창의적 성과, 창의적 과정, 창의력의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눠 판단할 수 있는데, 이중 창의성을 개인이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판단한 Amabile(1996)의 관점은 바로 창의성을 창의적 성과로 판단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그러나 창의력 또는 창의성은 결과산출 이전에 새롭고 유용한 과정을 핵심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이는 창의성을 결과 자체로 판단하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에 보다 집중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창의성 자체를 과정과 결과 중심으로 보지 않고 개인의 새로운 문제해결력, 즉 새로운 사고와 융통성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창의력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이덕로・김태열, 2008). 이는 창의성 이전에 유창성, 유연성, 정교성 등 개인의 새로운 사고와 융통성을 먼저 증진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창의성과 연관되어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온 개인 창의성 분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 초점이 '과연 어떻게 해야 특정한 개인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영향 연구로 이동되고 있다. 특히 사람의 심리적 성향은 창의성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일반화되면서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 역시 많은 부분 진행되었다. 개인 창의성과 연관되어 알려진 영향 요인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내재적 동기이다. 내재적 동기란 한 개인이 자신이 맡은 과업 그 자체에 대해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갖고 노력을 기울이는 열망을 의미하는데, 이는 개인의 창의성을 높이는데 대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사람의 감정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는 학자들은 내적 동기가 높은 개인은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며 이것이 창의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Silvia, 2008). 즉, 내재적 동기가 높은 사람은 새로운 생각이나 유용한 생각을 다른 이에 비해 더 높게 하고 이는 사물이나 사안에 존재하는 공통된 패턴이나 현상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인지적 유연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이 기존 선행 연구에서 강조된 사항이다.

개인의 창의성 역량은 개인의 동기 부여 정도와 성격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외 개인을 둘러싼 환경 측면도 매우 의미 있는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창업 환경에 정착되어 있을 때 개인들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③ 기술적 역량

기술창업기업의 경우 그 속성상 고도의 첨단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고, R&D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감안해보면 탁월할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은 기술창업기업의 생존 및 성과창출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기술 간의 활발한 복합화, 융합화가 이루어지는 최근의 기술적 상황에서 기술 트렌드에 대한 창업가의 다양하고 신속한 이해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기술에 대한 구체적 지식은 부족하더라도 기술의 성격, 기술의 로드맵, 기술의 발전경로, 향후 기술의 전개과정 등에 대한 이해가 풍부할 필요성이 있다. 기술창업기업의 경우 조직구성원이 소수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창업가의 기술적 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2.2.3 창업가의 역량과 창업성과 선행연구

경영자의 역량특성과 성과와의 관련성에 대한 Baum(2001)의 연구에 의하면 최고경영자의 역량특성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전략과 조직 구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경영자의 역량을 일반역량과 특수역량으로 구분하였는데, 일반역량에는 조직기술, 지휘기술을 포함시켰고, 특수역량에는 산업기술, 기술적 기술을 포함시켰다.

Chandler & Jansen(1992)은 경영자의 역량부분을 크게 3가지, 즉 기업가적 능력, 관리적 능력, 기술적·기능적 능력으로 구분하였다.

기업가적 능력은 기회인식 능력과 벤처기업 성공을 위한 열정으로 구분하였고, 관리적 능력은 인간적 능력, 개념적 능력, 정치적 능력으로 구분하였다. 기술적·기능적 능력은 자기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 및 기법의 능력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업가적 능력은 높은 성장률을 가져오며, 관리적 능력은 기업의 수익적 차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고, 특히 이러한 관리적 능력은 기업에서의 교육과 관리경험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 성공한 벤처기업은 경영자의 기술적·기능적 교육수준이 높고, 해당 분야에서 기술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창업가의 역량이 창업성공 및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표 2-4>와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2-4> 창업가의 역량이 창업성공 및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구자	연구 주제	연구 결과
박동건과 최대정 (2003)	창업자의 행동을 토대로 내적인 특성을 관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창업자의 핵심역량을 파악하여 창업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규명	자기보고식 역량 측정 도구를 개발할 수 있으며 창업자가 지녀야 할 중요한 역량은 사업지향성, 목표설정, 내적통제소재 도출
나상균 (2008)	창업기업의 경쟁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창업자의 특성에 따라 경영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고 창업기업의 경영특성이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	창업자의 연령, 학력, 경력은 경영전략, 조직관리, 혁신성의 실행정도에 영향을 미침
윤종록과 김형철 (2009)	창업가 역량특성을 외생변수로 하고 경영전략을 매개적 내생변수로 설정하여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	창업가의 특성은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경영전략을 통한 매개효과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장대성(2000)	창업가들의 창업교육 필요성을 분석하고 창업자들의 성별, 연령, 학력, 분야, 경험 등의 특성에 따라 창업교육의 내용에 대한 필요성차이가 있는지 분석	학력 및 업종, 창업경험에 따라 창업교육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예비창업자의 특성에 따라 창업교육의 필요성이 다르며 개인적 특성에 맞는 창업교육이 더욱 효과적
전대열·윤현덕 (2011)	기술창업기업의 기업가 역량과 기술사업화 능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기술창업기업의 성과창출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규명	기업가 역량은 기술사업화 능력을 거쳐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전략적사고 역량이 기술사업화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박동건과 최대정(2003)은 창업의 성공을 위해 창업자의 내적인 특성, 즉 역량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창업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구분되는 역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 후 창업자의 내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관찰 가능한 행동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토대로 창업자의 핵심역량을 파악하고 창업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 자기보고식 역량 측정 도구를 개발할 수 있으며 창업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은 사업지향성, 목표설정, 내적통제소재 등을 도출하였다. 나상균(2008)은 창업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창업가의 특성에 따라 경영특성의 차이와 창업기업의 경영특성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창업자의 연령, 학력, 경력은 경영전략, 조직관리, 혁신성의 실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록과 김형철(2009)은 창업가의 역량특성이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영전략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Baum(2001)의 벤처성장에 대한 구조모형연구를 기반으로 창업가 역량을 외생변수, 경영전략을 매개적 내생변수로 설정하여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장대성(2000)은 창업가의 특성(연령, 학력, 창업경험)에 따라 창업교육의 내용에 대한 필요성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창업가의 특성에 따라 창업교육의 필요성 및 요구하는 내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의사결정이나 직무환경변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서 창업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전대열·윤현덕(2011)은 기술창업기업의 기업가 역량 및 기술사업화 능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기술창업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하여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규명하였다. 그 결과 기업가 역량은 기술사업화 능력을 거쳐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전략적 사고역량이 기술사업화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2.2.4 창업가의 역량과 창업행동 선행연구

창업가의 역량과 창업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핵심역량인 창의적 역량에 초점을 두어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Staw(1990)은 조직혁신의 진화론적 모델을 통해 조직혁신은 문제를 해결해줄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는 창업가의 역량이 다양성 추구의 변이단계와 그 중 적절한 것을 골라 개발과 실행에 옮기는 선택적 보전 단계를 거치면서 진화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변이 영역은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내적 동기 부여 등과 관련이 있다. 선택적 보전 영역은 다시 새로운 창업기회 발굴, 프로젝트 개발, 실행과 결과 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출의 단계를 거치면서 아이디어의 선택과 선택된 아이디어의 실행과 관련이 있는 영역이다. 전자는 창업가의 역량, 후자는 창업 행동인 기회발견과 기회 활용과 관련이 있으며, 창업의 전 단계로 창업가의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Kanter(1988)도 창업의 사업화 실행의 기초적 조건은 기업가의 관리적 역량, 창의 역량에서 출발한다고 하였다. Scott & Bruce(1994)도 창업가의 혁신적인 행동의 출발점을 창업가의 창업가역량에 두고 있다. 창업가의 창의적인 능력과 혁신 및 혁신행동의 개념을 구분한 연구자들도 이들을 별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기보다는 확장된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역량을 창업 및 창업행동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Reynolds, P.D (1991)은 창의적인 사고는 조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질을 높이고, 혁신적인 행동을 자극하며 개인적 자질을 독려하여 동기부여와 몰입을 증대시키고 팀의 성과에 촉진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창의적 역량이 높은 창업가는 창업 행동에서 내재적으로 높게 동기부여 되고 나은 창업성과를 이룬다는 의미이다.

Farmer(2003)는 창업가의 개인적인 창의성과 아이디어 발굴 행동을 연계하여 내재적 동기유발, 관련지식, 창의적 사고 기술의 총합으로 측정한 창의성이 개인의 아이디어 발굴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이디어 발굴과 활용에 대한 행동의 정의를 보면 창업가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이를 유용한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Gartner(1989)는 창의적 결과물을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Davidsson(2007)은 주어진 상황 하에서 창의적 역량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관점들을 통해 창업가들이 갖고 있는 창의적인 역량은 아이디어 발굴의 기회와 활용에 의해 창업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3 창업 행동

2.3.1 창업행동의 개념

창업행동이란 창업가의 특성 가운데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속성을 의미한다. 창업가는 무엇보다도 창업의 목적과 비전이 분명해야 한다. 비전이란 비전의 속성과 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용, 그리고 비전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는 행동 일체를 말한다.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비전의 속성과 내용은 창업가의 비전 커뮤니케이션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비전 커뮤니케이션은 벤처기업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가들은 성장 가능한 신생 기업이 창업되어 발전과정을 거쳐 정점에 달하도록 활동을 개시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Reynolds 1991). 따라서 초기 창업가들은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지속적으로 창업활동에 관여하여야 한다. 또한 창업가들은 소유의 측면에서 신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소유하기를 기대하고, 운영과정에서 상당기간 흑자의 현금흐름을 격지 못할 수도 있다. 창업에 대한 동기조사의 관찰 단위로서 초창기 창업가들의 활용 이점은 초기 프로세스에 진입하는 개인들을 위한 인지단계로 설명된다. 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시도는 성공적이지 않더라도, 계속 노력하거나 실패하여 그만두는 개인들의 인지적 차이를 규명하는 기회를 학자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유익하다(Reynolds, 2007).

현재 초기 창업활동 단계에 강조되는 창업동기유발의 역할과 뒤따르는 행동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행동연구에서는 혁신행동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혁신행동이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한다(Scott & Bruce, 1994). 혁신행동을 지향하는 개인은 현재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현상유지에 도전한다(Kanter, 1988: Scot & Bruce, 1994). 이러한 혁신행동은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주변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때,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개인에서 집단으로 확산될 때에 비로소 실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개인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이나 모델을 생산하고, 이로써 아이디어를 완성한다(Kanter, 1988: Scot & Bruce, 1994). 또한 사람들은 혁신적 행동을 실행하기 전에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혁신행동은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하는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성공할지 여부에 대해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Kanter, 1988, Scot & Bruce, 1994). 연구자들마다 다른 차이점은 Davidsson(2006)이 개념적 정리를 더 잘하고 동일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의해 언급되었다. 그런 맥락에서 그는 Shane과 Venkataraman(2000)의 연구에 기초하여 기회인식과 활용 과정이 확연한 발생에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Davidsson, 2003). 기회인식과정은 초기 인식과 모험정신에 대해 의미하는 반면 활용은 새로운 모험정신에 대한 행동의 결정과 이와 관련된 행동을 의미한다. 초기 창업가활동의 기회인식 및 활용은 아마도 가장 이론적으로 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립되었을 것이므로 여러 연구들을 유용하게 비교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초기 창업가 활동의 조직화 작업은 창업가적인 기회의 인식과 활용에 의해 특정 지어지는 창업가과정의 개념화를 사용하였다(Davidsson, 2003, Shane & Venkataraman, 2004).

2.3.1.1 초기 창업 행동

회사를 창업하려는 사람의 동기와 행동은 기업가정신 연구의 흥미 있는 분야이며 수년간 관심이 증대하여왔다. 창업자는 어디서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증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활발한 연구는 어떻게 하나의 아이디어가 새로운 창업으로 발전되는가를 설명하는 계획된 행동모형이다. 또 다른 연구들은 개인적 특성, 가치, 성격, 인구통계학적 요소를 결합하여 창업자적 행동이 각각의 개인차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규명하는 동기모형과 배태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초기창업자 행동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는 창업가적 과정모형이다(Carter et al., 2003).

초기창업자는 새로운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점에서 초기창업자는 새로운 제품 혹은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새로운 영역의 시장을 제공하거나 또는 수익성 있는 효율적인 생산 방법의 개발을 통해 어떤 가능성을 갖고 사업기회를 추구하고자 한다(Dimo, 2010).

초기창업자는 정의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태동 가능한사업을 시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진지하게 창업활동을 하는 사람이며, 초기창업자는 아직 새로운 기업의 소유를 이행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벤처기업을 창업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Carter et al., 1996).

새로운 사업은 즉각적으로 형성되지는 못하며 새로운 기업의 탄생에 우선하여 준수해야할 잉태기간이 있다. 이 기간 동안 초기창업자는 벤처기업의 설립을 위해 직접적으로 해야 할 여러 가지 행동들을 수행한다. 이러한 예비 창업 준비활동에는 자본조달, 설비와 장치, 인허가 신청, 특허, 사업계획서 작성 등이 포함된다. 잉태기간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끝나게 되는데, 초기창업자가 유아기 단계의 기업을 설립하거나, 창업 준비 노력을 그만두고 창업을 포기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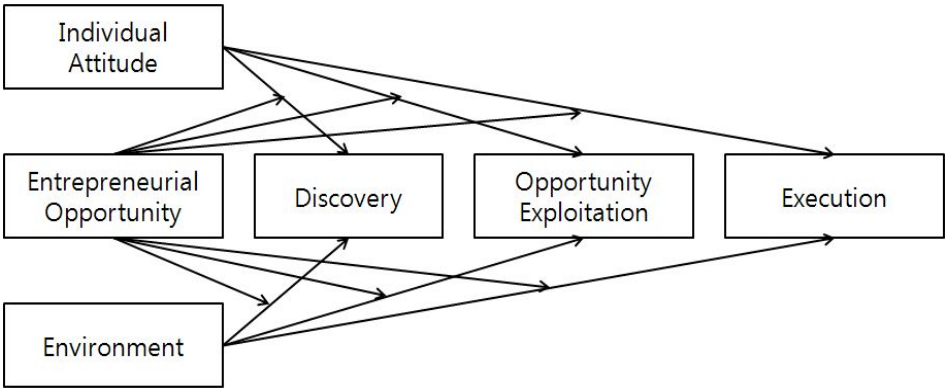
Ajzen(1991)은 초기창업자 행동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그는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의도와 행동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면서 특정 행동에 대한 개인 의도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행동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의도는 창업자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창업의 활동 수준을 강조한 개념인 창업활동은 노동, 자본, 기술에 이어 네 번째 생산요소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창업활동과정을 창업초기단계, 창업단계, 초기발전단계로 구분하고, 창업초기단계에서는 창업의도와 기업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고 사업기회를 탐색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을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며, 창업 후 3년간의 초기발전단계에서는 성공적인 시장진입과 자금조달 등 경영문제의 해결을 통해 창업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발판을 다지는 시기이다. 초기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의 주요 과제는 회사 설립 이전의 창업 과정에 관여하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것이었다(Davidsson, 2005; Reynolds, 2007). 창업 과정은 종종 2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Davidsson, 2003, 2004; Shane & Venkataraman, 2000). 이것은 아이디어의 발견과 활용이다.

발견은 벤처 아이디어의 확인과 구체화와 관련이 있다. 특정 시장을 이용하기 위해 초기 창업가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찾고, 만나고 또는 개선하는 것은 창업 과정의 개념적 측면이다. 활용은 창업가들이 자원을 획득함으로써 그리고 시장에 진입하거나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벤처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과정이다.



출처: Shane et al (2003), "Entrepreneurial Motivat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2. 257-279

<그림 2-2> 창업행동의 과정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3.2 창업행동의 구성요인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아이디어이다. 사람들은 '아이디어만 좋은 게 하나 있기만 하면 되는데' 라고 말한다. 그래서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사업아이디어를 찾아 나선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는 잘 나타나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또 어디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을까? 기회발견의 문제는 모든 예비창업가들의 최대관심사이다.

창업기회를 발견하려면 사업기회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기회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 창업가들에게 발견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기업의 사업기회에 대해서는 이미 마케팅 분야에서 많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창업에 있어서는 자세한 연구가 되어 오지 못했다. 창업상황에서는 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개별적상황이 매우 중요한데 특정한 개인 창업가에게 기회가 어떻게 발생되고 있으며,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식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뜻에서 기회발견과 기회인식에 관련된 여러 측면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으로 이어지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인 기회 발견의 아이디어 발견에 대한 구체적 속성을 파악하고, 파악된 사실에 근거하여 창업아이디어 또는 기회를 효과적으로 발견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전 연구에서 초기 창업행동에 대해 많은 개념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Katz & Gartner(1989)를 따라 Brush, Manolova, Edelaman(2008)은 이러한 활동을 의도, 자원, 경계, 변화측면 이라는 용어로 특정 지었다. Diochon, Menzies, Gasse(2005)는 초기 활동을 약속, 연결, 통제로 나누었고 Reynolds(2007)는 이 활동들을 사업의 유무, 생산실행, 유기적 재정 구조, 개인적 기회, 개인적 준비, 그리고 업무 혹은 생산물에 대한 집중으로 분류하였다. 연구자들마다 다른 차이점은 Davidsson(2006)이 개념적 정리가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맥락에서 그는 Shane과 Venkataraman(2000)의 연구에 기초하여 기회인식과 활용 과정이 확연한 발생에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Davidsson, 2004).

기회 인식 과정은 초기 인식과 모험정신에 대한 증진을 의미하는 반면 활용은 새로운 모험정신에 대한 행동의 결정과 이와 관련된 행동을 의미한다. 초기창업가들의 활동의 조직화 작업은 창업가적인 기회의 인식과 활용에 의해 특정 지어지는 창업과정의 개념화를 사용하였다(Davidsson, 2003).

이러한 관점들을 2단계 과정으로 이용하는데 첫째는 기회 발견(Discovery)행동이며 둘째는 기회활용(Opportunity Exploitation)행동으로 제시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3.2.1 기회 발견

1) 기회 발견의 개념

창업은 사업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되는데, 모든 아이디어가 다 사업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 사업성분석, 제품개발, 시험을 거쳐 상품화되기까지 사업아이디어는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선택된다. 사업아이디어를 상품화하여 시장에서 경쟁성을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인지, 공급의 부족을 만족시키는 제품인지 또는 유리한 조건 때문에 기존제품과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제품인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창업하는 기업의 생산품은 발명품일수 도 있고, 시장의 기존제품이거나 국내 시장에 처음 도입되는 외국제품 일 수 도 있다.

성공적인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중에서 맨 처음 할 사항은 수익성이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많은 기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조사한 Murpy는 사업이 성공하는데 필요한 황금의 열쇠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업을 하는 것' 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5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 아이디어 감소과정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60가지 신제품 아이디어 가운데 단지 하나만이 제품의 성공화를 가져왔다고 한다. 창업에 있어서 창업 아이템 선택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사업아이템 선정은 사업성패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회발견은 다양한 창업활동 노력 및 미래기회 초점을 의미한다(Baron, 2009; Foo. Uy and Baron, 2009). 이러한 기회발견 프로세스는 모험적인 아이디어 개발과 관련된 결정 및 행동으로 정의된다.

Farmer 등(2009)의 연구에서는 Carter, Gartner, Reynolds(1996)가 인식한 대부분의 창업 경험들이 포함되는데, 그것은 재정적 지원 탐색, 사업계획 준비, 특허 및 저작권 신청, 장비 구입 및 대여, 사업에 할애되는 시간, 개인 투자, 직원고용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회인식 과정에 맞춰졌기 때문에 기회 인식 항목도 포함하였다(Hills, 1996, Singh, 2009). 여기에는 의도적이거나 우연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탐색활동을 포함하였다 (세미나 참석, 친구, 친척, 잠재적 고객, 투자자, 공급자들과의 사업 구상 논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기회 발견의 선행연구

초기창업자 행동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반이 되는 사업기회를 발견하는 것은 창업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특히 어떤 사업기회를 발견하느냐는 향후 기업의 방향과 성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회발견은 창업자에게 전략적 의사결정을 요구한다.

기업가정신 분야의 기존연구는 대체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기회와 관련되어 기업가가 가진 선천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한 연구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중요한 기회원천 및 기회 특성, 기회 실현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박상문, 2004). Stevenson(1994)은 기회를 '현재 통제 가능한 자원에 관계없이 조직 내외부의 개인들이 기회를 추구하는 과정이며,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한 미래상황'으로 정의 내리고, 기회는 특정시간, 상황, 개인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Timmons(1994)는 기회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회추구의 타이밍이 벤처기업의 향후 성장에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기회발견의 적절한 순간을 강조하였다.

기회발견은 시장의 수요와 자원의 결합을 인식하는 절차를 말하며, 장래 유망한 사업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자원을 이동하거나 전환하는 것으로(Venkataraman, 1997), 특히 외부환경과 창업자의 역량이 결합하면 기업가적 기민함을 유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회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Shapero,1982).

Shane et al.(2003)은 창업활동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회를 발견한 이후의 결정, 즉 기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원을 추구하고, 이용메커니즘을 설계하는 결정 등은 창업자의 의지에 달려있는데, 인간의 동기는 창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동기에 있어서 사람들 간의 차이는 누가 창업기회를 추구하고, 누가 자원을 모으고, 어떤 방식으로 창업의 전 과정에 착수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기회발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사회적 네트워크이다. Hills(1995)는 기업가가 가진 네트워크가 기회의 인식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사람과의 활발한 상호작용 및 네트워크 구축이 기회발견과 기회를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축은 사업기회 발견의 체계적인 탐색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창업과정의 연구들에서 창업자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신생조직의 형성이나 자원획득,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활용은 벤처기업으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여금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주기도 한다.

Venkataraman(1997)은 벤처기업의 새로운 가치창출과 이익의 기반이 되는 사업기회를 어떻게 발전, 창의적으로 활용해야 하는지와 기회 자체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제안하고,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사업기회 발견이 중요하며 기회추구 과정 그 자체에 대한 집중을 통해 경영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창업과정에서 기회의 발견은 기회와 관련된 창업자의 이전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창업자의 선험적 지식이 일종의 지적 교두보 역할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특정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어 경험과 기회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Venkataraman,1997; Shane, 2000).

창업자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기 보다는 이전 조직에서 얻은 경험과 관련된 영역에서 사업기회를 포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기회발견과 관련하여 인지심리학자들은 창업자들이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관점으로 환경을 인지함으로써 혁신과 창업을 하게 된다고 파악하는 반면, 구조주의자들은 창업자들이 정보를 통해 빈번한 실수와 직관적인 관점으로 환경을 해석함으로써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Koller(1988)는 창업아이디어의 원천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사업기회를 발견하게 되었는가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제안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직장동료 19%, 친인척 17%, 만나는 사람 12%, 광고 2% 순이었으며, 나머지 45%의 응답자가 실제로 자기스스로가 사업기회를 확보했다고 설명하였다.

Vesper(1982)는 사업기회를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이미 사업기회와 관련된 제반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못한 경우이다. 그는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게 된 사람은 이 아이디어를 무심코 발견하는 것이며, 의도적으로 아이디어를 열심히 찾는 사람의 대부분은 실패로 끝난다고 보았다. John Case(1989)는 미국의 성장형 창업회사 500개를 선정해 창업아이디어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43%의 창업자들이 창업기회를 동일한 산업에 근무한 경험에 의하여 얻은 반면, 창업기회를 의식적으로 체계적으로 탐구하였다는 창업자는 7%밖에 되지 않았다. 그 외 사업기회 원천으로는 개인적인 관심 15%, 소비자 시장에 충족되지 않은 틈새시장 11%,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 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조병주(1999)는 71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아이디어가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단서를 통해 얻어졌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첫째, 창업의지 면에서 53.5%에 해당하는 38개 기업 창업자들은 창업하려는 적극적 의사를 창업 이전에 갖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고 있지 않았다. 과반 수 이상이 창업의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성공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기회가 어떠한 경험적 배경 안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전 직장을 배경으로 기회가 가장 많이 발생(56.3%)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전공분야 또는 교육을 통해 익힌 기능분야를 배경으로 창업기회를 얻은 창업자가 11.3%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취미생활(3%), 기타 배경이 28%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아이디어가 어떠한 단서를 통해서 발견 또는 접촉되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기회를 포착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단서로는 단순관찰(29.6%), 시장을 미리 내다봄으로써 기회를 얻게 된 경우(23.9%),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회를 얻는 경우(16.9%)와 사회적 만남을 통해서 타인으로부터 기회(10%)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지용 외(2002)는 기회탐색 활동의 내용 중에서 창업자의 기회 인식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고, 기회 인식 출발점과 손익분기점 도달기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기회 인식의 방법은 크게 시장수요인식과 기술기회인식으로 나누고 있는데, 창업자가 기회를 인식하는 출발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배태조직이며, 창업자들이 대개 배태조직에서 경험을 쌓던 중에 사업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배태조직을 출연연구소, 대학, 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창업자의 배태조직이 출연연구소인 경우에는 창업자가 기술에서 기회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대학인 경우는 시장에서 기회를 인식하기도 하고 기술에서 기회를 인식하기도 하며, 기업 출신인 경우에는 시장에서 출발한 기회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영근과 정승화(2010)는 기업가의 인적, 사회적 자본이 기회포착과 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기업가의 인적, 사회적 자본은 정보통신 사업기회 포착 뿐 만 아니라 벤처캐피털 투자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들이 영업실적과 유형적 담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벤처캐피털은 투자대상 기업의 미래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요인들을 근거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요인들 중 기업가의 능력과 인적자본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도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장우(2000)는 기회포착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시장, 타이밍, 경험과 창업팀을 제시하였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객들이 원하지 않는, 즉 시장성이 없는 기회를 쫓는다면 성공적인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성공적인 사업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잘 조직된 창업팀을 어떻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활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이들을 창업팀으로 확보하는 것도 창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좋은 아이디어도 창업팀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쓸모없는 기회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5> 기회발견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Birley(1985) Freeman(1999)	창업자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기회발견, 자원획득, 기업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Koller(1988)	사업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아이디어의 원천은 직장동료 19%, 친인척 17%, 만나는 사람 12%, 광고 2% 이며, 45%가 자기 스스로 사업기회를 발견했다.
John Case(1989)	미국 성장형 창업회사 500개 조사한 결과, 43%의 창업자들이 창업기회를 동일한 산업에 근무한 경험에서 발견.
Vesper(1990)	사업기회를 접하게 되는 7가지 유형으로 기대치 않은 초대, 전직장, 권리의 획득, 자기고용, 취미, 지인과의 만남, 단순한 행인의 관찰로 분류.
Venkataraman(1997) Shane(2000)	창업자의 선험적 지식이 특정 기회를 발견하는 지적 교두보 역할을 하므로 경험과 기회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
Vaghely & Juilen(2008)	인지 심리학자들은 창업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환경을 인지함으로써, 구조주의자들은 직관적인 관점으로 환경을 해석함으로써 사업기회를 발견한다.
조병주(1997)	창업아이디어 발견 배경 조사에서 전 직장(56.3%), 교육(11.3%), 취미(3%), 기타(28%)의 순이었다.
이장우(2000)	기회포착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시장, 타이밍, 경험과 창업팀을 제시.
정지용 외(2002)	창업자가 기회를 인식하는 출발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배태조직이다.
최영근, 정승화(2010)	기업가의 인적, 사회적 자본은 정보통신 사업기회 포착뿐 만 아니라, 벤처캐피탈 투자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3.2.2 기회활용

기회활용은 기회의 인식과 활용 측면에 관한 관점이다. Davidsson(2004)은 “기회 인식은 초기 인식이며 기회 활용은 모험적 정신의 발전이다.”라고 정의하였고 활용은 “새로운 모험 정신에 기초한 행동 결정이자 현실화를 위해 취해지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활용과정은 주로 자원 획득, 조정, 시장형성을 포함한다.

기회활용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의사결정과 이와 관련한 행동 즉, 목표지향을 위한 창업가적 노력과 열정을 의미한다(Baron and Locke, 2009; Cardon et al., 2009; Shane, Locke and Collins, 2003). 이러한 창업가 행동의 기회발견과 기회활용은 기존연구와 비교하여 가장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유용한 개념이다(Farmer et al. 2009).

사업화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사업화란 기술혁신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혁신이란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기존 제품의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을 실현하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 따라서 혁신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것이든 외부로부터 도입된 것이든 간에 특정 조직에서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여 이를 실용화하는 것을 말한다. 정지용 외(2002)는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크게 기술적 요인, 경제적 요인, 기업특성 요인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기업 특성적 요인으로 기업가의 특성, 기업의 크기, 기업의 경험, 기업의 자금능력, 기업의 기술능력, 기업의 관리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중 연구개발능력, 기술축적 능력, 기술혁신체제로 이루어진 기술혁신능력에서 기업의 기술능력으로 학습능력, 연구개발능력, 자원배분능력, 생산능력, 마케팅능력, 조직능력, 전략계획능력의 7가지로 제시하였다.

이장우(2001)은 IT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전략모델개발 연구에서 사업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벤처기업 경영성과 결정요인과 글로벌요인을 종합하여 여섯 가지의 사업화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사업화 영향요인은 창업가특성, 조직·자원능력, 창업과정, 기술특성, 산업 환경특성, 글로벌 특성 등이다.

1) 사업 아이템 선정 활동

창업가의 사업 아이템 선정은 창업의 방향을 제시하며, 창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창업 성공요소 중 하나이다. 창업하는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사업 아이템만으로는 기업이 성립할 수 없으며,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만족되어야 기업이 성립될 수 있다.

Longenecker와 Moore(1987)는 창업가가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업의 가장 큰 관심사임의 분명하며 사업아이템은 창업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라고 주장했다. Cooper(1986)등은 사업 아이템을 어디서 얻는가에 대해 아이템을 얻는 기회는 전직의 일로부터 상당수를 획득하고 있으며, 기회와의 조우는 능동적 탐색에 의해서, 그리고 우연 등의 수동적 인식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Koller(1988)는 대부분의 사업기회가 나타나면서 드러나고 있어서 이를 인식할 줄을 아는 것이 사업 아이템을 직접 찾아 나서는 행동보다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창업을 하려고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사람들은 전직의 경험과 훈련된 자기의 기술을 중심으로 아이템을 찾는 의도적 탐색노력이 필요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연히 아이디어를 얻어 사업을 하려면, 전직이나 기술보다 분석적인 논리에 바탕을 두고 시장을 살펴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병주(1999)의 연구에서는 창업가가 창업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창업은 일어나고 있고 또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창업의지를 사전에 가지고 있었던 창업가들보다 창업 이전에 창업의지를 갖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공한 창업가들 가운데 더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사업 아이템의 취득기회는 우연한 상황에서 많이 발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기회는 전직, 교육, 취미 등의 여러 배경을 통해서 얻어지고 있는데, 그 중 전직을 배경으로 해서 빈번히 기회를 얻고 있었다.

2) 창업자원 획득 활동

창업자원획득활동은 자원기반이론을 바탕으로 정의 하고자 하며 기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 내부에 있다는 이론이다(Barney & Zajac, 1994). 창업에서의 창업가의 능력이 유·무형의 자원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성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가의 경영능력이며, 창업가의 창업자원획득활동의 핵심 요소로서 경영능력이 기업의 차원획득과 미래 전략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창업자원획득활동은 단순히 고유자원이나 역량을 보유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능력을 계발하고 학습할 수 있는 역동적 능력도 중요시한다. 또한 기업 내 자원뿐만 아니라 기업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도 중시한다(이춘우, 1999). 따라서 기업은 자신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능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원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잠재력과 외부자원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활용하는 능력을 동시에 보유할 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창업자원획득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창업자금과 조달, 창업 교육, 전문가 상담 등이 있다. 이런 창업 자원 획득 활동 등은 창업행동의 기회발견과 기회활용의 부분에서 행해지는 과정들이다.

2.4 창업 성과

2.4.1 창업성과의 개념 및 측정 지표

본 연구는 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창업성과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양한 측정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되고 있다.

Cooper(1993)는 벤처기업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을 제안했는데, 그의 모형은 창업자 특성, 창업과정, 초기기업 특성 및 환경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간의 연구들이 주로 개념모델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보다 이론적인 들과 실증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Tsai(1998)는 성과측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두 가지를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다수의 성과관련 연구에서 객관적인 재무적 지표 이외에 인지된 직무성과 만족도, 만족도의 조직 유혀성 등 주관적 지표가 추가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Venkataraman & Ramanujam (1986)은 여러요인들을 다차원구조로 파악하여, 첫째, 재무적 지표로서 투자자본 수익률, 총자산수익률, 매출액수익률, 자기자본수익률 등 재무성과, 둘째 비재무적 지표로서 시장점유율, 성장률, 다각화 및 제품혁신 등 사업성과, 셋째, 주관적 지표로서 마족도, 근로생활의 질, 사회적 책임 등 조직효과성의 세 가지 수준에서 성과를 측정하였다.

Stuart and Abetti(1997)는 벤처기업의 성공을 주관적 성공과 객관적 성공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성공단계는 2단계 또는 3단계 이상과 연속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무적 성공에 대비하여 종업원 수의 증가 등 사회적 기여와 기업의 학습과정 등 비재무적 성공을 표현할 수 있고, 성공이 계획 대비 실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충족과 부족의 차원에서도 표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벤처기업의 성공을 두 가지로 측정한 바 매출액, 고용성장률, 수익성, 자기자본수익률, 종업원 대비 매출액과 자산대비 매출액 등의 계량적 성공과 기대목표의 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성정도, 생존확률, 외부자본 조달능력, 종업원 만족도, 사회에의 기여 등 주관적 성공을 지표로 하고 리커트 척도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평균치로 기업의 성공을 실증적으로 측정한 바 있다(고상봉 외 2003).

Hughes(2006)는 태동단계의 회사에 대한 경영성과를 고객에 대한 성과와 제품에 대한 성과로 나누고, 고객에 대한 성과는 고객유치와 유치된 고객의 유지로 다시 나누어 신규시장에 진입하는 회사는 생존하기 위해 새로운 고객에 관심을 끌고 그 고객을 기본으로 하여 반복된 주문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설명하였다. 제품에 대한 성과는 판매를 위한 제품의 상대적인 성공과 이를 통한 시장점유율의 달성을 기초로 측정된다. 왜냐하면 신규설립 회사는 주로 한 두가지 정도의 주요 생산제품을 시장에 선 보여 이의 성공을 통하여 시장진입에 성공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성과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즉, 정량적 성과인 재무적 성과는 창업가가 창업 후 기업을 운영하면서 매년 매출액의 지속적인 상승을 확인함으로서 기업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하고, 정성적성과인 비재무적 성과는 직원을 지속적으로 고용함으로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인지된 기업성과를 측정하였다.

2.4.2 창업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중소 벤처기업의 경우 제대로 된 재무자료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경영자들이 재무자료를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고 생각하여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재무적 측정의 어려움에 대한 대안으로 Covin & Slevin(1990)은 벤처기업의 성과를 주관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주관적인 지표를 사용하는 경우 기업의 내부 자료인 재무자료가 공개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재무정보 공개에 따른 경영자의 거부감을 감소시킨다는 이점이 있다.

Zarhra(1993)는 신생벤처의 경영성과는 시간적으로 서로 다른 시점에서는 서로 다르게 측정되어져야만 한다는 주장을 인용하여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는 단일항목으로 측정하기 어려우며 벤처의 성장단계마다 중요한 측정지표가 다르게 측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주관적 경영성과 측정항목으로 시장점유율,생산성,수익성,브랜드인지도,신제품개발에 따른 만족정도를 측정지표로 사용하였다.

Carter et al.(2003)은 창업성과를 창업자의 창업 결과만족으로 인식하고, 자아실현,혁신, 독립, 인정, 역할, 재정 성공의 여섯 가지 만족도를 제시하였다.

자아실현은 창업자가 관심을 보이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도전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말한다. 혁신은 새로운 것을 성취하려는 개인의 의도이며 ,독립은 자유, 지배, 시간 활동의 유연성과 관련된 개인의 바람을 의미한다. 인정은 지위를 확보하고 지지를 받고, 가족, 친구 및 지역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의 의도를 말하며, 역할은 가족 전통을 따르고 본보기가 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려는 개인의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성공은 창업을 선택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재정적으로 안정을 얻으려는 것이다.

창업성과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홍성도(2001)은 한국 벤처기업의 경영자 특성과 성과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경영자의 특성을 학력, 기업가경험, 창업경험, 관련 산업에서의 근무경험 등의 인구통계학 특성과 심리적 행위적 요인 및 리더십으로 형성되는 행태적 특성으로 나누고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정성한과 김해룡(2001)은 소상공인의 창업성공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서 창업의 성공요인을 업종경험, 창업경험, 경영관리경험, 성취욕구, 통제위치 등을 개인적 특성으로 창업자금의 규모와 창업자금에서 자기자본, 사채, 금융 자금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규모를 자금조달, 자금관리, 계획성, 상담, 가격, 촉진, 입지 경영 관리 변수로 놓고 창업의 성과부분은 사업에 대한 개인의 태도로서 자신이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만족도와 월 매출액과 월 순수익을 조사한 재무적 성과를 평가하였다.

박상문(2004)은 국내 벤처기업의 창업팀 특성, 기술전략 및 성과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존연구에서 제시되는 것과는 달리 창업팀의 규모, 역할완결성, 기술지향성은 벤처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경쟁하는 벤처기업들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정도와 외부기술협력정도 및 기술전략과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기술경영자의 존재여부가 벤처기업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창업팀의 구성특성에 따라 벤처기업의 기술 전략에 차이를 보였는데, 창업인의 기술적 경험이나 배경에 따른 벤처기업의 기술전략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최고 기술경영자의 존재여부는 벤처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외부기술 협력정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소상공인의 창업과정특성과 기업성과의 영향관계를 연구한 박춘래(2010)등은 소상공인의 창업과정 특성을 사업계획 완성도, 자금조달능력 ,전문가 활용도, 입지 우월성, 업종차별화 정도의 다섯 가지 요인으로 파악하고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종열(2006)은 창업 보육 센터 내 기술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외부자원의 조달에 있어 네트워크의 활용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성과와 관련이 있는 네트워크 특성을 연구하였다.

첫째, 네트워크 특성 중 원천의 크기는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네트워크 빈도는 자문 네트워크, 공공 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영향이 확인되었으나 사적 네트워크는 유의하지 않았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둘째,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를 확인하였는데, 창업기와 성장기 기업 모두 원천의 크기는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셋째, 업종에 따른 성과 영향요인에서 원천의 크기는 모든 업종에 있어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네트워크의 빈도는 IT업종에서는 자문 네트워크,사회적 네트워크가, 비IT업종의 경우 유의한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술창업기업의 외부자원조달 방법으로서 네트워크 특성이 기업의 성장단계 및 사업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3.1 연구모형의 설계

기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청년 창업가의 역량과 창업에 대한 기회발견과 기회활용 및 창업성과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연구를 설계하고자 한다.

청년 창업가의 역량 특성이 창업 기회발견과 기회활용,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청년 창업가의 역량과 기회발견과 기회활용 및 창업성과 간의 복합적 상호작용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청년창업가의 역량과 기회발견, 기회발견과 기회활용, 기회활용과 창업성과 변수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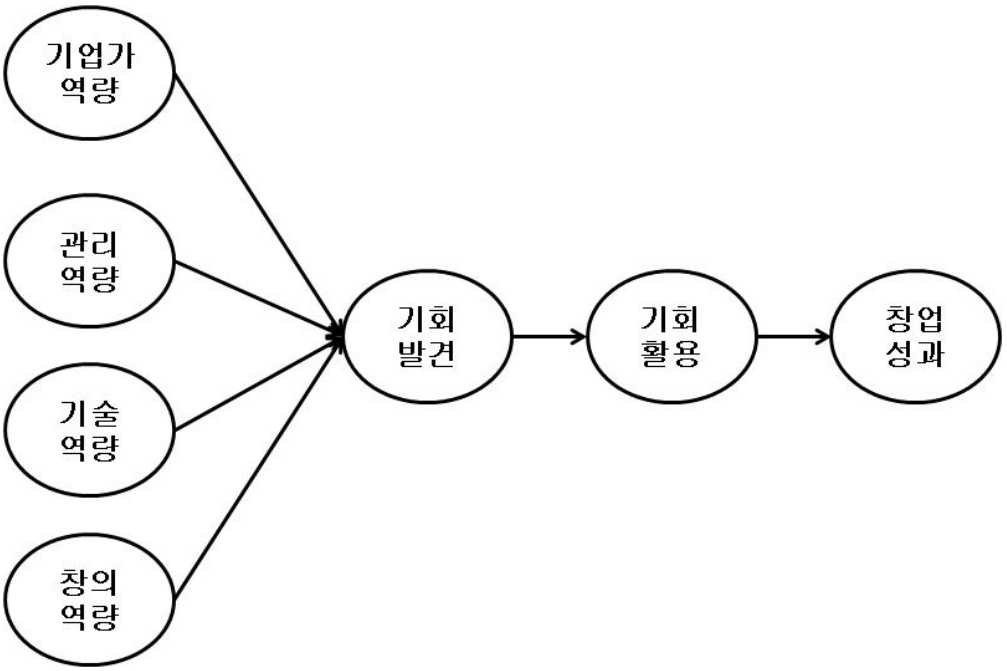
기회 발견과 기회활용과정에서 인적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Markman, 2007; Shane, 2003)는 선행연구와 사업에 대한 기회인식과 활용 과정이 창업성과에 중요하다고 주장한 Davidsson(2004)의 연구, 초기 창업가들의 활동의 창업가적인 기회 인식과 기회활용에 의해 특정 지어지는 창업과정의 개념화를 사용한 Shane & Venkataraman(2004)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창업과정을 2단계 과정으로 첫째는 기회 발견(Discovery)행동이며 둘째는 기회활용(Exploitation)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념과 인지적 차원에서 Ajzen,I.(1991)이 분류한 초기창업가 행동인 기회발견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초기 청년창업가 행동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며 이러한 청년창업가의 역량특성이 기회발견과 기회활용을 매개로 궁극적으로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청년 창업가의 창업과정과 창업성과에 관한 연구에서 창업가 특성과 창업과정, 창업성과에 대한 동일한 단일차원 함수관계로 파악하는 연구들은 청년 창업의 창업과정과 동기, 창업성과에 대한 설명의 한계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Shane et al (2003)의 창업행동과정에 대한 구조모형연구에 근거를 두고 청년 창업가의 역량 특성을 외생변수로 기회발견과 기회활용을 매개적 내생변수로 설정, 청년 창업기업의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그림 3-1> 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3-1> 연구모형

3.2 가설의 설정

앞에서 제시한 창업가의 역량 특성 중 기업가역량, 관리역량, 기술역량, 창의역량, 기회발견과 기회활용 그리고 창업성과 사이의 연구모형을 통해 도출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3.2.1 청년 창업가의 역량특성과 기회발견

역량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Boyatzis(1982)는 역량을 특정 개인이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성공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개인의 내재적 특성 으로 정의하였다. Spencer(1993)도 역량은 어떠한 상황에서 뛰어난 수행이나 준거 관련된 행동과 연관된 개인의 특성에 기초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창업가의 역량은 창업 프로세스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창업을 위한 시스템의 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축과 운영을 위해 인적, 재무적 자원을 확보하는 등의 창업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Baum et al(2001)는 역량을 자원이론 관점에서 설명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그러한 사업기회를 실현시키기 위해 새로운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창업가의 통합적인 역량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창업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의 획득. 조합. 재배치로 설명할 수 있으며, Baum, Locke 및 Smith(2001)는 창업가의 역량은 직무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이라고 주장하였다.

Nuttin, J.(1984)도 창업의 모든 활동이 창업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회사목표는 곧 창업가의 목표이고, 전략은 창업가의 성공을 측정하는 척도라고 주장한다. 창업기업에서 경쟁력 획득과정은 핵심 행동자인 창업가의 역량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사업아이템 선정이나 사업의 거의 모든 권한이 이들 창업가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기업경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른 기업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들의 지식, 기술 및 능력은 곧 창업기업의 주요 역량이자 기업성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인적요소에 대한 강조는 창업기업의 주요 차별적 역량이 창업가의 경험, 지식 및 기술이라는 Stoner(1987)의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인지되고 있으며, 인과 관계적 측면에서 다른 개인특성보다 역량이 기업성과에 보다 근접한 요인이라 것이다(Boyatzis, 1982; Man, Lau & Chan, 2002). 또한 역량은 인지적 측면으로 인지적 스타일 혹은 인지적 능력으로 불린다. 인지적 스타일은 개인이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여 이를 기존의 인지 구조와 관련 지어 환경에 반응하는 개인의 내적 정보처리 방법이다. 인지적 스타일 관점에서 창의성역량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인지적 스타일 관점에서 창의성은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로 분류한다. 수렴적 사고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정답을 찾거나 전형적인 해답을 생각해내는 것이고, 확산적 사고는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나 다양하게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으로 정의한다.

창의성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한 통찰로 볼 때 수렴적 사고가 유용하느냐 확산적 사고가 유용하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다. 통찰은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에 적합한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사고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라고도 한다. 최영근과 정승화(2010)는 창업가의 인적특성이 기회포착과 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창업가의 인적특성은 정보 통신사업기회 포착 뿐 만 아니라 벤처캐피털투자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일반적으로 벤처기업들이 영업실적과 유형적 담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벤처캐피털은 투자대상기업의 미래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요인들을 근거로 투자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요인들 중 창업가의 능력과 인적특성도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창업행동은 기회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과정으로 Bird(1988)는 기회를 발견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동기 부여 및 창업가의 개인적 욕구, 가치, 신념과 함께 형성된다고 할 수 있으며, 직업, 동기, 개성, 가족환경, 사회적 규범 등 다양한 요소가 창업의도를 결정 짓는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청년 창업가의 역량 즉 기업가역량, 관리역량, 기술역량, 창의역량은 창업의도와 사업기회발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도와 기회발견을 창업가의 역량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Ⅰ 청년창업가의 역량특성은 기회발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Ⅰ-1 청년 창업가의 기업가역량은 기회발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Ⅰ-2 청년 창업가의 관리역량은 기회발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Ⅰ-3 청년 창업가의 기술역량은 기회발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Ⅰ-4 청년 창업가의 창의역량은 기회발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청년 창업가의 기회발견과 기회활용

창업에 있어 기회 인식 및 발견 과정은 초기 인식과 나아가 모험정신에 대한 증진을 의미하는 반면, 기회활용은 새로운 모험정신에 대한 행동의 결정과 이와 관련된 행동을 의미한다. 초기 창업가 활동의 기회인식 활용 입체화는 아마도 가장 이론적으로 잘 정립되었을 것이므로(Shane & Venkataraman, 2000), 여러 연구들을 유용하게 비교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초기 창업가들의 창업 활동 조직화 작업은 창업가적인 기회의 인식과 활용에 의해 특정 지어지는 창업과정의 개념화를 사용하였다(Shane & Venkataraman, 2004).

이러한 관점들을 2단계 과정으로 이용하는데 첫째는 기회발견(Discovery)이며 둘째는 기회활용 (Exploitation)으로 제시하였다. 기회발견은 기회의 인식과 활용 측면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관한 관점이다. Davidsson(2004)은 “기회인식은 초기 인식이며 나아가 모험적 정신의 발전이다.”라고 정의하였고 기회활용은 “새로운 모험 정신에 기초한 행동 결정이자 현실화를 위해 취해지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기회활용 과정은 주로 자원습득, 조정, 시장형성을 포함한다(Davidsson, 2004) 라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기회발견(Discovery)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의사결정과 이와 관련한 행동 즉, 목표지향을 위한 창업가적 노력과 열정을 의미한다(Baron and Locke, 2004; Cardon et al., 2009; Shane, Locke and Collins, 2003). 이러한 창업가 행동의 기회발견과 개발의 개념은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가장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유용한 개념이다(Farmer et al. 2009).

기회활용이란 개인이 문제는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한다(Scott & Bruce, 1994).

혁신행동을 지향하는 개인은 현재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현상유지에 도전한다(Kanter, 1988, Scot & Bruce, 1994). 이러한 혁신행동은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주변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때, 다시 말하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개인에서 집단으로 확산될 때에 비로소 실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연합을 기초로 개인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이나 모델을 생산하고, 이로써 아이디어를 완성한다. 일단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면, 이것은 사라지지 않으며 대량생산되어 제도화되는 경향이 있다(Kanter, 1988, Scot & Bruce, 1994).

기회인식 과정은 초기 인식과 나아가 모험정신에 대한 증진을 의미하는 반면, 기회활용은 새로운 모험정신에 대한 행동의 결정과 이와 관련된 행동을 의미한다. 초기 창업가 활동의 기회인식 및 활용의 입체화는 아마도 가장 이론적으로 잘 정립되었을 것이므로 여러 연구들을 유용하게 비교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우리의 초기 창업가 활동의 조직화 작업은 창업가적인 기회의 인식과 기회활용에 의해 특정지어지는 창업가 과정의 개념화를 사용하였다(Davidsson, 2003, Shane & Venkataraman, 2004). Shapero와 Shaneetal(2003)은 창업활동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회를 발견한 이후의 결정, 즉 기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원을 추구하고, 이용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결정 등은 창업가의 의지에 달려있다.

인간의 동기는 창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동기에 있어서 사람들 간 의 차이는 누가 창업기회를 추구하고, 누가 자원을 모으고, 어떤 방식으로 창업의 전 과정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에 착수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정지용(2002)은 기회탐색 활동의 내용 중에서 창업가의 기회인식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고 기회인식 출발점과 손익분기점 도달기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기회인식은 크게 시장수요인식과 기술기회인식으로 나누고 있는 데 창업가가 기회를 인식하고 창업을 실현하는데 출발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창업가의 특성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Ⅱ 청년 창업가의 기회발견은 기회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청년 창업가의 기회활용과 창업성과

가설 Ⅲ은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결과 청년 창업가 행동은 창업초기단계에서 청년 창업가의 역량과 기회발견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창업을 실제로 실행하기에 앞서 창업가의 역량은 창업활동의 첫 번째 행동으로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청년 창업가의 기업가역량, 관리역량, 기술역량, 창의역량은 도전과 성취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Baum et al, 2001). 따라서 이러한 청년창업가의 역량은 재무적 경영성과 뿐만 아니라 창업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무리 창업가의 역량이 있다 하더라도 창업을 감행할 사업 아이디어가 없다면 창업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사업 아이디어는 창업가가 사업을 추진하는 기본 도구이며, 사업 기회발견의 첫 단계이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반드시 좋은 사업 기회를 의미하지 않는다.

Venkataraman(1997)은 창업기업의 새로운 가치창출과 이익의 기반이 되는 사업기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끊임없이 사업기회를 발견하려는 노력을 통해 창업성과를 높이고 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Timmons(1994)는 기회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회추구의 타이밍이 창업기업의 향후 성장에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기회발견의 적절한 순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가의 역량과 기회발견의 요소를 포함하는 초기창업가 기회활용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는 예측을 가능케 하며,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Ⅲ 청년 창업가의 기회활용은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청년 창업가의 역량과 창업성과 관계

다음은 기존의 선행연구 이외에도 사회적 자본을 다룬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창업가의 역량은 창업성과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기존연구들에서는 창업가의 역량이 창업성과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년 창업가의 역량이 창업가의 기회발견과 기회활용을 매개로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Ⅳ 청년 창업가의 역량은 기회활용을 매개로 창업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연구방법

4. 1 자료의 수집 및 표본의 특성

4.1.1 표본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하여 창업가 역량특성과 기회발견, 기회활용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창업성과의 영향요인으로 구분된 창업가 역량 특성 중 기업가역량, 관리역량, 기술역량, 창의역량, 기회발견, 기회활용 그리고 창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14년 3월 5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이루어 졌으며 1차 조사는 대한민국 창업박람회에 참가하여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2차 조사는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600개 업체를 선정하여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2개월에 걸친 수집기간동안 총 98부(회수율 49%)의 매우 저조한 회수율을 보였기 때문에 설문지를 우편조사로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각 지역의 청년 창업가과 관련된 유관기관을 활용한 수집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약속된 일정이더라도 기업체 사정에 따라 현장에서 작성하여 곧바로 회수하는 것이 대부분 곤란하여 최초 방문 시에는 설문지 배부 및 작성요령을 설명하고 작성이 완료된 후 전화통보에 의거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 회수 방식에 대한 응답율과 참여율이 비교적 낮아 제 3차 설문조사에서는 각 지역별 청년 창업가를 직접 방문하거나 청년 창업 박람회를 등에 참가한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600개 업체에 배포하였으며, 그중 459개 업체가 회수되었다.

그러나 설명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항 중 응답이 누락되어 결측치가 있거나 내용작성이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47개 업체 분을 제외한 후 412개 청년 창업기업의 유효한 설문지를 확보하였다. 이렇게 하여 총 412부의 유효한 설문지가 본 연구 분석에 이용 되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1.2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표본기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표본기업에 대한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청년 창업가의 특성 상 표본은 만 19세부터 39세로 한정지였으며 그 결과를 살펴보면 만 19세-25세가 37.6%로 표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만 26-30세가 27.8%, 만 31-35세가 24.1%, 만 36-39세세가 10.5%로 나타났다.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이하가 25.9%, 전문대졸은 14.4%, 학사학력은 5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대학원학력은 5.8%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청년 창업가의 전공을 살펴보면 경영, 경제학은 4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학은 15.6%이며 자연과학은 17.6%이며 예,체능은 18.0%, 의, 약학에는 5.1%로 나타났다. 직장경험에는 "창업 전 직장경험이 있다" 에 37.4%, "창업 전 직장 경험이 없다" 에 61.6%으로 창업 전 직장 경험이 없는 경우가 더 많게 나타났다. 청년 창업가의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에는 25.4%이며, 서비스업에는 25.9%이며, 유통업에는 12.4%이며, IT업에는 21.1%, 지식서비스업에는 15.1%로 나타났다. 지역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경기지역은 16.8%, 부산, 경남지역은 16.1% 대구, 영남지역은 18.9%, 광주, 전남지역에는 36.7%, 대전, 충청지역에는 11.6%로 나타났다.

<표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명	%	구 분		명	%
학력	고졸이하	106	25.9	나이	만19-25세	154	37.6
	전문대졸	59	14.4		26-30세	114	27.8
	학사	221	53.9		31-35세	99	24.1
	석사	19	4.6		36-39세	43	10.5
	박사	5	1.2				
업종	제조업	47	25.4	전공	경영,경제	179	43.7
	서비스	48	25.9		공학	64	15.6
	유통	23	12.4		자연과학	72	17.6
	IT	39	21.1		예,체능	74	18.0
	지식서비스	28	15.1		의, 약학	21	5.1
직장경험	있다	155	37.4	소재지	서울, 경기	71	16.8
					부산, 경남	67	16.1
					대구, 영남	82	18.9
	없다	257	61.6		광주, 전남	146	36.7
					대전, 충남	46	11.6
합 계		412	100%	합 계		412	10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2 변수의 조직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4.2.1 변수의 조작적 정의

실증연구를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계량적인 측정이 요구되며 이러한 측정을 통해서 현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특정변수의 상태와 변수들간의 관계를 분석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이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목적에 따라서도 학자들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본 연구목적에 맞도록 기존의 정의된 개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관찰 가능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1) 기업가역량

기업가 역량이란 환경을 탐색하고 약속된 기회를 선택하며 이러한 기회로부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즉 사업 기회 인식능력과 벤처성공을 위한 역량을 의미하며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역량, 사업성공에 대한 열정, 고객들이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는지에 대한 인식정도 등으로 Chandler & Hanks(1994)의 연구를 기초로 7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2) 관리역량

관리역량이란 자원을 획득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적 역량을 의미하며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고 경영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 자원을 배분하고 과업을 통합, 조정시킬 수 있는 역량, 감독과 설득을 통해 지도할 수 있는 역량, 조직관리역량, 권한을 효율적으로 위임하는 역량 등으로 Chandler & Hanks(1994)의 연구를 기초로 6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3) 기술역량

기술역량이란 자기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 기법에 대한 역량을 의미하며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정도, 전문화된 분야의 기술, 과정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 기술적 문제 해결 역량 등으로 Chandler & Hanks(1994)의 연구를 기초로 7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창의역량

창의적 역량이란 문제에 대한 하나의 정답을 찾거나 전형적인 해답을 생각해내는 것이며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나 다양하게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으로 정의한다(Forster et al., 2004 Guilford, 1967, Runco, 2004).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에 적합한 '유용하고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적합한 대안들을 산출하는 것이라는 연구를 기초로 7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5) 기회발견

기회발견은 다양한 창업활동, 노력 및 미래기회 초점을 의미. 기회발견 프로세스는 모험적인 아이디어 개발과 관련된 결정 및 행동으로 정의 (Baron(2008), Foo, Uy and Baron (2009)) 하였으며 창업 경험들은 재정적 지원 탐색, 사업 계획준비, 특허 및 저작권 신청, 장비 구입 및 대여, 사업에 할애되는 시간, 개인투자, 직원고용 등 (Carter, Gartner, Reynolds (1996))이며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8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6) 기회활용

기회의 인식과 기회활용 측면에 관점으로 기회인식은 초기 인식이며 나아가 모험적 정신의 발전이며 활용은 새로운 모험 정신에 기초한 행동 결정이자 현실화를 위해 취해지는 행동. 활용과정은 자원습득, 조정, 시장형성을 포함(Davidsson (2004))하며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의사결정과 이와 관련한 목표지향을 위한 창업가적 노력과 열정을 의미 (Baron and Locke (2004), Cardon et al.,(2009), Shane, Locke and collins (2003))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6개항목으로 측정하였다.

7) 창업성과

성과 측정과 관련하여 청년 창업가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하여 감안하여 주관적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매출액, 고용창출, 인지된 창업성과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Zahra(1996), 양희순(2002)의 측정요인을 기초로 하며 그 측정요인으로는 매출액, 고용창출, 비재무적 성과로 인지된 창업성과 등의 5개항목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2> 창업가 특성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관련연구

연구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척도 (범위)	관련문헌
기업가역량	기회 인식능력과 벤처성공을 위한 열정	연속변수 (1-5)	Chandler,G.N&Hanks,S.H (1994)
관리역량	인간적 능력, 개념적 능력 정치적 능력	연속변수 (1-5)	Chandler,G.N&Hanks,S.H (1994)
기술역량	자기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 기법의 능력	연속변수 (1-5)	이장우 등(2007)
창의역량	타인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도출하고 독창적인 유추나 은유 및 참신한 생각과 다른 분야의 장점을 벤치마킹 하는 능력	연속변수 (1-5)	Spencer & Spencer(1993) 김경식(2005)
기회발견	기회 발견 프로세스는 모험적인 아이디어 개발 및 결정 및 행동으로 정의	연속변수 (1-5)	Miller, D.(1998) 강숙자(2003), 고봉상(2004)
기회활용	새로운 모험 정신에 기초한 행동 결정이자 현실화를 위해 취해지는 행동	연속변수 (1-5)	Miller, D.(1998) 강숙자(2003), 고봉상(2004)
창업성과	인지된 창업 성과 (매출액, 고용창출)	연속변수 (1-5)	Zahra, S.A(1996) 양희순(2002)

4.2.2 설문지 구성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할 설문지는 연구목적에 맞게 질문의 범위를 크게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한 청년창업가의 역량 특성과 기회발견과 기회활용 그리고 창업성과 범주, 일반현황 6가지 부류로 구분하고자 한다. 설문항목은 선행연구에서 검토되어진 것으로서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검증된 사항을 선별적으로 본 연구목적에 맞도록 일부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첫 번째 부류는 청년 창업가의 사업동기와 창업사전준비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부류는 청년 창업가의 역량특성에 관한 질문으로 청년창업가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기업가역량 7개 문항, 관리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6개 문항, 기술역량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을 측정하기 위한 7개 문항, 창의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7개 문항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평가에 사용된 척도는 리커트 평가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세 번째 부류는 창업행동에 관한 질문으로, 기회발견 8개 문항, 기회활용을 측정하기 위한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 부류는 창업성과에 관한 질문으로 인지된 지표로 매출액, 고용인원, 신제품 개발능력, 브랜드인지도 등으로 4개 문항으로 구성되였다.

다섯 번째 부류는 청년창업기업의 일반현황에 관한 질문으로 창업 시 연령, 학력, 전공분야와의 관련성정도, 직장근무경험, 업종, 소재지 등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지 구성은 <표 4-3>와 같다.

<표 4-3> 설문지의 구성

변 수	문 항 수	문항번호
창업동기	7	Ⅰ-7
창업사전준비	7	Ⅱ-7
기업가역량	7	Ⅲ-1 1~7
관리역량	6	Ⅲ-2 1~6
기술역량	7	Ⅲ-3 1~7
창의역량	7	Ⅲ-4 1~7
기회발견	8	Ⅳ-1 1~8
기회활용	6	Ⅳ-2 1~6
창업성과	5	Ⅵ-1 ~ Ⅵ-4
연령	1	Ⅶ-1
학력	1	Ⅶ-2
전공분야	1	Ⅶ-3
직장근무경험	1	Ⅶ-4
업종	1	Ⅶ-5
소재지	1	Ⅶ-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3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기술통계분석, 탐색적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에는 SPSS 19.0 KO for Windows를 사용하며 확인적 요인분석 및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및 경로분석은 Amos 1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창업가의 역량특성, 창업행동, 창업성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탐색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자료분석의 절차는 첫째,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둘째,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이때 개념측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측정모형의 분석을 먼저 실시하며 다음으로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구조모형을 분석한다.

셋째, 간명성이 높은 최적의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대안모형을 실시한다.

구조방정식 모형이 가지는 장점은 여러 개의 측정변수를 이용해서 추출된 공통변량을 변수 즉, 잠재변수로 사용하므로 그 변수의 측정오차가 통제된다는 점과 매개변수의 사용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매개변수는 특성상 모형에서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회귀분석의 경우, 한 변수는 하나의 역할만을 해야 하므로, 특히 매개변수가 하나 이상인 경우, 매개 수의 도입 및 평가가 쉽지 않다. 회귀분석 대신 경로분석 사용하면 매개변수를 쉽게 다룰 수 있지만 경로분석에는 잠재변수가 아닌 측정변수가 사용되므로 측정오차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대안모형을 통한 방법은 연구자가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가능한 여러 모형을 제시하고 이들을 비교하여 최적의 모형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단일모형 평가는 하나의 모형만을 평가하여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게 되므로 더 나은 대안모형의 선택 가능성이 없어 제시한 모형이 적합도가 좋다고 해서 최적의 모형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과 수정지수를 통한 모형의 수정은 연구자가 분석하는 특정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수정모형을 일반화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러므로 단일모형 평가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대안모형을 통한 평가방법이다(홍세희, 2007). 대안모형 평가방법으로 Baum(2001)의 연구에서 이루어진 간접 및 직접모형에 기초하여 최적의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업가 역량, 관리역량, 기술 역량, 창의역량이 기회발견, 기회활용에 직접적인 영향과, 기회발견, 기회활용을 통한 간접적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그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고 직접적인 효과를 제외한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만을 살펴보는 것을 대안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은 제안된 공식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Ⅴ. 실증분석

5.1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가설 검정에 앞서 가설검정에 필요한 각 구성개념들이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측정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신뢰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반복하여 측정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과가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내적 일관성 검정법은 같은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측정도구 내의 항목별 평균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신뢰성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 측정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Cronbach's Alpha계수를 이용한다. Cronbach's Alpha에 의한 신뢰성 검정은 사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 방법으로 측정수단들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타당성은 측정하려고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즉, 특정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측정도구가 그 속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요인분석은 여러 변수들의 저변에 존재하는 하나의 혹은 여러 개의 요인들을 찾아내는 통계적 기법으로 여러 개의 변수들을 그 보다 적은 수의 요인으로 정리한다는 점에서 자료를 축소하고 요약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변수들을 요인별로 정리한다는 점에서 분류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요인분석에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증적 요인분석이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연구 대상의 저변에 존재하는 잠재요인을 찾아보거나, 자료를 요인으로 축소하여 살펴보는데 사용한다. 반면 확증적 요인분석은 잠재요인에 대한 가정을 계량적으로 확인하는데 사용한다. 그렇다고 이 둘 사이의 경계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다만 확증적 요인분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통상 연구 대상에 많은 사전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정충영, 최이규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증적 요인분석을 병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요인으로 묶이지 않거나, 전체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수정된 총 점수와의 상관관계가 낮고 Alpha값을 상당히 개선시키는 항목은 최종분석에서 제외되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1.1 변수의 탐색적 요인 및 신뢰성분석

타당성은 그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를 의미하게 된다. 타당성의 평가는 그 방법에 따라 개념 타당성, 기준관련 타당성, 내용 타당성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용 타당성은 특정한 측정도구의 대표성에 관한 개념이며, 기준 관련타당성은 특정변수간의 통계적인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또한 개념 타당성은 변수들의 특성 측정과 관련한 것으로서 측정자체의 정확성에 관련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개념타당성을 검증하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흔히 요인분석이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의 판별 타당성과 개념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추출에 있어서는 구해진 자료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요인의 수를 적절히 줄이기 위한 주성분요인분석 방식을 사용하였고, 요인의 회전으로는 직각회전방식(Varimax)을 선택하였다. 외생변수에 대한 요인 분석결과는 <표 5-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2개 문항 중 9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23개 문항이 6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청년 창업가의 역량특성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창의적 역량에서 4번문항과 6번 문항은 요인 적재치가 적합하지않아 타당도를 저해하여 제거하였다. 관리역량에서는 1번과2번이 요인 적재치가 적합하지 않아 타당도를 저해하여 제거하였다. 기술역량에서는 1번,2번,3번 문항이 제거되었으며 기업가역량에서는 2번,7번 문항을 제거하였다.

기회 발견의 요인 분석결과 2번,3번,5번 문항이 요인 적재치가 적합하지 않아 제거하였으며 기회 활용에서는 1번 문항만 제거되었다. 창업성과에서는 모두 적합하여 제거하지 않고 사용되었다.

각 요인별로 적재치를 살펴 0.6이상인 변수들만 추출하였는데, 그 결과 창의적 역량, 기회활용, 창업성과, 관리역량, 기술역량, 기업가 역량, 기회발견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창업가의 창의적 역량을 설명해주는 설명분산은 11.59%, 기회활용을 설명해주는 설명분산은 11.15%, 창업성과는 9.41%로 나타났으며 관리역량을 설명해주는 설명분산은 8.82%, 청년 창업가의 기술역량을 설명해 주는 설명분산은 8.70%이였으며, 기업가 역량의 설명분산은 8.53%, 기회발견은 7.29%로 도출되었다.

전체적인 누적 분산 설명비율은 62.53%로 나타났다. 또한 도출된 차원들의 내적 신뢰성 검증을 위한 Cronbach's Alpha 분석결과 모든 차원들이 일반적으로 기준값 0.6을 초과함으로써 각 문항에 대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복 유사한 질문은 각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구해서 상관관계가 낮은 값을 제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Cronbach's Alpha 분석결과 청년창업가의 창의적 역량은 α=0.911, 기회활용은 α=0.904, 창업성과는 α=0.891, 청년창업가의 관리역량은 α=0.865, 기술역량은 α=0.844 이었으며 기업가 역량은 α=0.812, 기회발견은 α=0.803으로 나타났다.

<표 5-1> 변수의 탐색적요인 및 신뢰성 분석

변수	창의적 역량	기회 활용	창업 성과	관리 역량	기술 역량	기업가 역량	기회 발견
창의적역량1	.843	-.017	.056	.065	096	.102	.095
창의적역량3	.827	.074	.018	.148	-.016	.094	.076
창의적역량2	.820	-.009	.053	.123	.048	.179	.076
창의적역량7	.732	.077	.056	.217	.144	-.035	.143
창의적역량5	.730	.075	.036	.071	.150	.141	.070
기회활용2	.010	.784	.138	.038	.125	.218	.146
기회활용4	-.004	.779	.166	.016	.183	.138	.100
기회활용5	.033	.764	.173	.118	.011	.059	.153
기회활용6	.141	.705	.187	.206	.064	-.005	.027
기회활용3	.016	.682	.203	-.018	.116	-.006	.116
창업성과2	.016	.185	.812	.087	.066	.121	.113
창업성과1	.078	.192	.805	.121	.050	.115	.151
창업성과4	.017	.223	.801	.194	.057	.099	-.017
창업성과3	.125	.341	.735	.077	.122	.159	.048
관리역량4	.136	.118	.106	.787	.051	.077	.046
관리역량5	.166	.040	.120	.754	.116	.156	.150
관리역량3	.110	.064	.139	.703	.053	.216	.096
관리역량6	.194	.089	.073	.687	.100	.240	.111
기술역량6	.094	.148	.029	.074	.852	.074	-.039
기술역량7	.228	.142	.057	.033	.753	-.116	.030
기술역량5	.067	.078	.091	.116	.719	.256	.233
기술역량4	.021	.102	.116	.116	.709	.283	.167
기업가 역량1	.138	.158	.164	.045	.145	.724	.152
기업가 역량3	.093	.032	.118	.248	.034	.722	.167
기업가 역량4	.135	.059	.043	.187	.156	.722	.062
기업가 역량5	.104	.107	.139	.198	.053	.641	.124
기회발견7	.173	.237	.014	.092	.243	.139	.707
기회발견6	.137	.370	.111	.079	.100	.070	.689
기회발견4	-.005	.057	.149	.299	.056	.096	.675
기회발견1	.181	.032	.035	.010	-.002	.213	.637
고유치	3.479	3.345	2.828	2.648	2.610	2.561	2.190
설명분산(%)	11.597	11.150	9.419	8.827	8.701	8.537	7.299
누적분산(%)	11.579	22.747	32.166	40.694	49.694	58.231	62.530
Cronbach's Alpha	0.911	0.904	0.891	0.865	0.844	0.812	0.80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2 상관관계 분석

5.2.1 변수들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을 <표5-2>에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청년 창업가의 기업가 역량은 모든 변수들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관리역량(r=.494), 기술역량(r=.337), 창의역량(r=.325), 기회발견(r=.421), 기회활용(r=.290), 창업성과(r=.366)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5-2> 변수들의 상관관계

	기업가 역량	관리 역량	기술 역량	창의 역량	기회 발견	기회 활용	창업 성과
기업가역량	1						
관리역량	.494**	1					
기술역량	.337**	.317**	1				
창의역량	.325**	.370**	.284**	1			
기회발견	.421**	.413**	.376**	.320**	1		
기회활용	.290**	.276**	.330**	.163**	.468**	1	
창업성과	.366**	.353**	.260**	.185**	.317**	.515**	1

*p<.05, **p<.01

다음으로 청년 창업가의 관리역량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기술역량(r=.317), 창의역량(r=.370), 기회발견(r=.413), 기회활용(r=.276), 창업성과(r=.353)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기술역량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창의역량(r=.320), 기회발견(r=.320), 기회활용(r=.330), 창업성과(r=.260)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창의역량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기회발견(r=.320), 기회활용(r=.163), 창업성과(r=.185)와 모든 변인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기회발견 역시, 기회활용(r=.468), 창업성과(r=.317), 모든 변인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기회활용은 창업성과(r=.515)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3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령, 학력, 전공, 전공과 생산 제품과의 관련성, 창업경험, 이전직장 경험 및 업종 등으로 대표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들을 연구모형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에 청년창업가의 기회발견과 기회활용, 창업성과와의 영향요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들을 외부변수로 취급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잠재적 중요성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들 중에서 창업당시의 연령, 학력, 전공별로 연구모형에 포함된 기회발견, 기회활용, 창업성과 등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5.3.1 연령별 차이분석

청년 창업가의 연령에 따라 기회발견, 기회활용, 창업성과 등의 변수 간에 차이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5-3>에 제시하였다. 창업당시 연령에 따른 기회발견, 기회활용, 창업성과 등의 변수의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기회활용, 창업성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회발견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기회활용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분산분석의 결과 F값이 5.546이고 이에 대한 P값이 0.001(P<0.001)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창업가의 연령에 따라 기회활용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증결과 19-25세 이하의 집단이 26-30세 집단, 31-35세 집단, 36-39세 집단과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각 집단의 평균을 살펴보면 19-25세 이하는 3.180, 26-30세의 창업가는 3.405, 31-35세의 창업가는 3.303, 36-39세의 창업가는 2.782를 나타내는데 대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창업에 대한 기회활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창업성과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창업성과의 분산분석의 결과 F값이 2.708이고 P값이 0.005(P<0.5)인 것으로 나타나 창업성과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후검증결과 19-25세 이하의 집단이 26-30세 집단, 31-35세 집단, 36-39세 집단과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창업성과의 경우 19-25세 이하는 3.155, 26-30세의 창업가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317, 31-35세의 창업가는 3.356, 36-39세의 창업가는 3.008의 평균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청년 창업가의 연령 중 26세에서 35세에서 비교적 창업성과가 높게 나나타나고 있음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3> 연령별 차이 분산분석

변수별	19-25	26-30	31-35	36-39	F	P
	평균(Std)	평균(Std)	평균(Std)	평균(Std)		
기회발견	3.685 (.620)	3.717 (.619)	3.636 (.599)	3.473 (.559)	1.405	0.241
기회활용	3.180 (.762)	3.405 (.771)	3.303 (.723)	2.782 (.941)	5.546	0.001
창업성과	3.155 (.674)	3.317 (.821)	3.356 (.594)	3.008 (.804)	2.708	0.005

5.3.2 학력별 차이분석

청년 창업가의 연령에 따라 기회발견, 기회활용, 창업성과 등의 변수 간에 차이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4>에 제시하였다.

학력에 따른 기회발견, 기회활용, 창업성과 등의 변수의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기회발견, 기회활용, 창업성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학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기회발견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분산분석의 결과 F값이 4.812이고 이에 대한 P값이 0.003($P<0.05$) 으로 나타나 학력에 따른 기회발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증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각 집단의 평균을 살펴보면 고졸이하는 3.525, 전문대졸이상의 청년 창업가는 3.673, 학사는 3.678, 대학원생은 4.117를 나타내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사업에 대한 기회발견이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기회활용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분산분석의 결과 F값이 3.517이고 이에 대한 P값이 0.004($P<0.05$)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학력에 따른 기회활용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증결과 전문대졸 집단이 학사 집단, 대학원 집단과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각 집단의 평균을 살펴보면 고졸이하는 2.979, 전문대졸 청년 창업가는 3.309, 학사는 3.315 대학원졸은 3.517를 나타내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기회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창업성과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분산분석의 결과 F값이 6.868이고 이에 대한 P값이 0.000(P<0.001)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학력에 따라 창업성과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증결과 박사집단이 고졸이하 집단, 전문대졸 집단, 학사 집단과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각 집단의 평균을 살펴보면 고졸이하는 3.056, 전문대졸 창업가는 3.199, 학사는 3.274, 대학원졸은 3.868으로 나타났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창업성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다. 차후 학력에 따른 기회발견과 기회활용, 창업성과에 좀 더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표 5-4> 학력별 차이 분산분석

변수별	고졸이하	전문대졸	학사	대학원	F	P
	평균(Std)	평균(Std)	평균(Std)	평균(Std)		
기회발견	3.525 (.548)	3.673 (.646)	3.678 (.603)	4.117 (.678)	4.812	0.003
기회활용	2.979 (.859)	3.309 (.651)	3.315 (.745)	3.517 (.985)	4.503	0.004
창업성과	3.056 (.607)	3.199 (.759)	3.274 (.725)	3.868 (.776)	6.647	0.000

5.3.3 전공별 차이분석

청년 창업가의 전공에 따른 기회발견, 기회활용, 창업성과 등의 변수 간에 차이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5>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기회발견, 기회활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창업성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기회발견의 분산분석의 결과 F값이 3.570이고 P값이 0.000(P<0.000)인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기회발견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경영학 전공 집단이 공학전공과 자연과학 전공집단과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기회발견의 경우 전공이 경영학은 3.729, 공학은 3.547, 자연과학은 3.668, 예체능 분야는 3.570의 평균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청년 창업가의 전공이 경영학이나 자연과학 경우 창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기회발견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회활용의 분산분석의 결과 F값이 4.871이고 P값이 0.003(P<0.05)인 것으로 나타나 기회활용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5> 전공별 차이의 분산분석

변수별	경영	공학	자연과학	예체능	F	P
	평균(Std)	평균(Std)	평균(Std)	평균(Std)		
기회발견	3.729 (.624)	3.547 (.525)	3.668 (.656)	3.570 (.562)	1.508	0.212
기회활용	3.376 (.748)	3.024 (.956)	3.300 (.759)	2.978 (.732)	4.871	0.003
창업성과	3.332 (.759)	3.113 (.817)	3.274 (.579)	3.063 (.696)	2.456	0.063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경영학 전공 집단이 공학전공과 자연과학 전공집단과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기회활용의 경우 전공이 경영학은 3.376, 공학은 3.024, 자연과학은 3.300, 예체능 분야는 2.978의 평균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청년 창업가의 전공이 경영학이나 자연과학 경우 창업에 대한 기회활용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청년 창업가에 대한 경영, 경제 관련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2.4 직장근무별 차이분석

청년 창업가의 직장근무 경력에 따른 기회발견, 기회활용, 창업성과 등의 변수 간에 차이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표5-6>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기회발견, 기회활용, 창업성과 모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발견의 분산분석의 결과 F값이 2.996이고 P값이 0.03(P<0.05)인 것으로 나타나 직장근무 경험에 따른 사업의 기회발견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직장경험에 따라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기회발견의 경우 근무경험이 있는 경우 3.789, 없는 경우에는 3.578의 평균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직장 근무경험이 있는 경우 사업기회에 대한 기회발견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회활용의 분산분석의 결과 F값이 3.094이고 P값이 0.002(P<0.05)인 것으로 나타나 직장 근무경험에 따라 기회활용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직장 근무 경험이 있는 집단과 직장경험이 없는 집단과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기회활용의 경우 직장경험이 있는 경우 3.412, 직장근무 경험이 없는 경우는 3.128의 평균값을 나타내는데 직장경험에 따라 사업실행에 차이가 있으며 직장 경험이 기회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창업가의 직장경험이 창업에 대한 기회활용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업성과의 분산분석의 결과 F값이 4.277이고 P값이 0.00(P<0.000)인 것으로 나타나 직장 근무경험에 따라 창업성과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직장 근무 경험이 있는 집단과 직장경험이 없는 집단과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창업성과의 경우 직장경험이 있는 경우 3.451, 직장근무 경험이 없는 경우는 3.098의 평균값을 나타내는데 직장경험에 따라 창업성과에 차이가 있으며 직장 경험이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창업가의 직장경험이 창업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청년창업가의 성공요인으로 창업 전 사전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론과 일치하다 할 수 있으며 창업가의 사전경험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5-6> 창업이전의 직장 근무경험에 따른 차이분석

변수별	있다	없다	t	P
	평균(Std)	평균(Std)		
기회발견	3.789 (.635)	3.578 (.581)	2.996	.003
기회활용	3.412 (.824)	3.128 (.756)	3.094	.002
창업성과	3.451 (.797)	3.098 (.638)	4.277	.000

5.4 연구모형의 분석

5.4.1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을 할 수 없는 연구모형의 전체적인 적합성 검증과 변수들 간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AMOS를 이용 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은 회귀분석이나 요인분석보다 복잡한 분석이 요구될 때 구조 방정식 모형을 쉽게 분석해 주는 도구로써, 다수의 설문 문항을 소수의 차원으로 축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요인 점수나 요인 평균값을 사용하여 분석에 활용하는 경우와 같은 원리이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취급되어 변수들 간의 함수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회귀방정식에 묻혀 결과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경우에 활용될 뿐이다. 또한 회귀분석에서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가 가정되고 검증됨으로써 변수들이 어떻게 서로에 영향을 미치는가, 즉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인 효과만을 표시해 줄 뿐, 예측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존재할 수 있는 간접효과나 제 3의 효과는 해석되지 않는 한계를 가진다. 이와 같은 한계는 경로분석을 통한 검증으로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에서 검증할 수 없는 모형의 적합성이나, 변수들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해서도 경로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과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청년 창업가의 역량 특성인 기업가 역량, 관리역량, 기술역량, 창의역량을 제시하였으며, 매개변수로는 기회발견과 기회활용 그리고 결과변수로는 창업성과를 선정하였다. 경로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청년 창업가의 역량특성이 기회발견과 기회활용과 창업성과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연구모형에 대한 전체적인 적합도와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에는 기업가 역량, 관리역량, 기술역량, 창의역량, 기회발견, 기회활용, 창업성과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경우 요인별로 따로 요인분석을 하는 방법,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방법, 투입되는 모든 요인을 함께 분석하는 방법 3가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요인을 함께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분포의 정상성을 가정하고 결측치가 있더라도 분석할 수 있는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5-7> 에 나타나 있다.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χ^2= 688.180 (p<.001)로 모형은 변수 사이의 관계를 완벽히 설명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함으로써 모형이 적합하지 않지만 χ^2 검증은 귀무가설의 내용이 너무 엄격하여 너무 쉽게 기각이 되고,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존재함으로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NFI=.878 TLI=.916, CFI=.926는 모두 .90이상이며, RMSEA= .051으로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정모형을 바탕으로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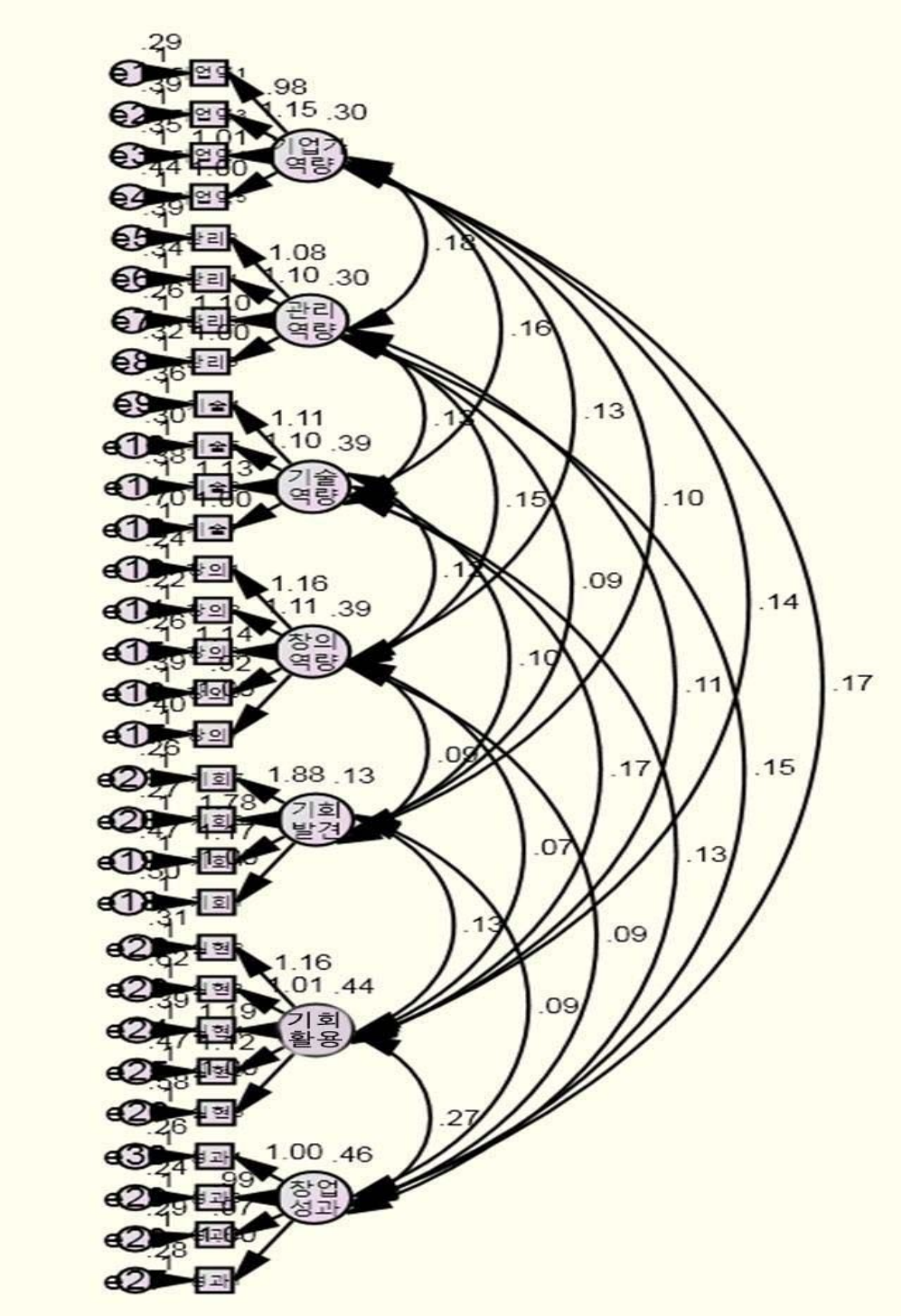
<표 5-7>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χ2	df	NFI	TLI	CFI	RMSEA	p
기준값	-	-	>.90	>.90	>.90	<.80*	>.05
연구모형	688.180	384	.878	.916	.926	.051	.000

*: RMSEA가<.05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8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 >.10이면 나쁜 적합도 (홍세희, 200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5-1> 측정모형분석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5-8> 요인 간 공분산(상관관계)

			공분산 추정치	상관관계 추정치
기업가 역량	↔	관리역량	.307	.582
기업가 역량	↔	기술역량	.175	.310
기업가 역량	↔	창의역량	.108	.232
기업가 역량	↔	기회발견	.095	.271
기업가 역량	↔	기회활용	.042	.107
기업가 역량	↔	창업성과	.253	.383
관리역량	↔	기술역량	.126	.231
관리역량	↔	창의역량	.157	.383
관리역량	↔	기회발견	.097	.213
관리역량	↔	기회활용	.033	.057
관리역량	↔	창업성과	.213	.486
기술역량	↔	창의역량	.037	.076
기술역량	↔	기회발견	.031	.0859*
기술역량	↔	기회활용	.086	.286
기술역량	↔	창업성과	.055	.122
창의역량	↔	기회발견	.245	.513
창의역량	↔	기회활용	.295	.528
창의역량	↔	창업성과	.234	.390
기회발견	↔	기회활용	.039	.080
기회발견	↔	창업성과	.167	.451
기회활용	↔	창업성과	.049	.11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5-9> 측정모형의 회귀계수

			회귀계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표준오차	t
기업가 역량	→	X1	1.000	.639		
	→	X2	1.013	.610	.093	11.194
	→	X3	1.141	.764	.078	9.101
	→	X4	.984	.754	.113	9.531
관리역량	→	X5	1.000	.444		
	→	X6	.700	.587	.100	7.036
	→	X7	.742	.521	.096	7.761
	→	X8	.614	.770	.101	6.105
기술역량	→	X9	1.000	.683		
	→	X10	1.150	.901	.068	17.009
	→	X11	1.116	.875	.063	17.670
	→	X12	.802	.820	.066	12.097
창의역량	→	X13	1.000	.530		
	→	X14	.917	.897	.079	14.395
	→	X15	1.144	.839	.072	8.687
	→	X16	1.111	.719	.071	7.673
	→	X17	1.157	.736	.069	11.700
기회발견	→	X18	1.000	.688	.067	10.677
	→	X19	1.174	.801	.067	11.674
	→	X20	1.776	.824	.064	12.870
	→	X21	1.877	.847	.070	15.631
기회활용	→	X22	1.000	.872		
	→	X23	1.243	.792	.065	14.616
	→	X24	1.190	.676		
	→	X25	1.150	.862	.176	8.561
	→	X26	1.102	.864	.162	8.527
창업성과	→	X27	1.000	.676		
	→	X28	1.276	.862	.111	11.509
	→	X29	1.186	.864	.103	11.507
	→	X30	.997	.817	.098	10.889

*** $p<.00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는 <그림 5-1>에 제시하였고 <표 5-8>에는 <그림 5-1>에 제시하지 못한 요인 간 공분산 추정치와 상관 추정치를 제시하였으며, <표 5-8>, <표 5-9>에는 잠재요인에 대한 측정변수들의 회귀 값을 제시하였다.

5.4.2 대안모형의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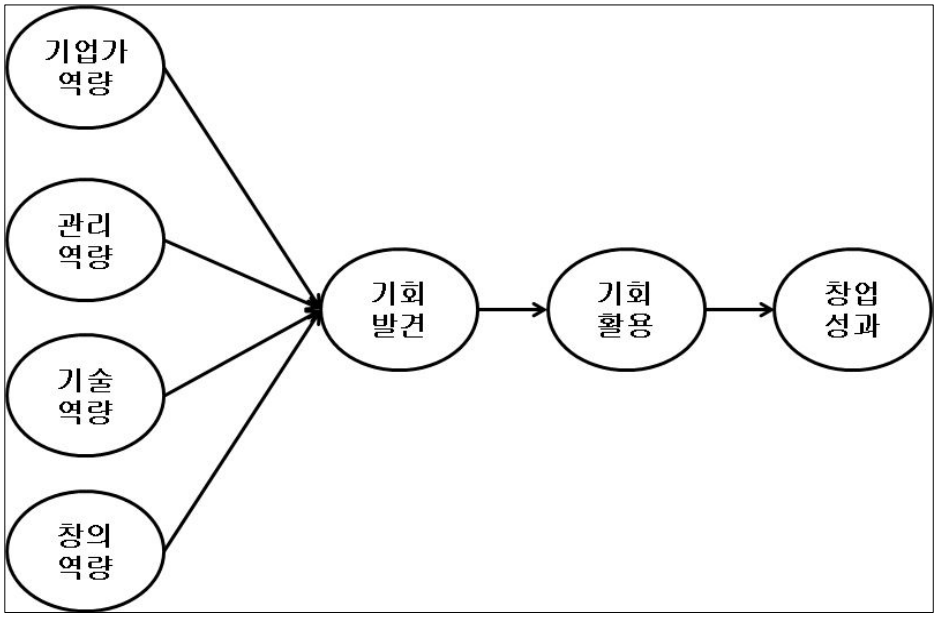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독립변수를 청년 창업가의 역량 특성인 기업가 역량, 관리역량, 기술역량, 창의역량을 제시하였으며, 매개변수로는 기회발견과 기회활용 그리고 결과변수로는 창업성과를 선정하였고 경로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청년 창업가의 역량특성이 기회발견과 기회활용과 창업성과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연구모형에 대한 전체적인 적합도와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최적의 모형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최적의 모형을 평가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단일모형 평가와 대안모형 평가의 두 가지 방법 중에 대안모형 평가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단일모형 평가는 하나의 모형만 상정하여 적합도 확인을 통해 최적의 모형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적합도가 좋지 않으면 적합도가 좋아질 때까지 수정해가면서 최적의 모형을 찾는 방법이다. 반면 대안모형을 통한 방법은 연구자가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가능한 여러 모형을 제시하고 이들을 비교하여 최적의 모형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단일모형 평가는 하나의 모형만을 평가하여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게 되므로 더 나은 대안모형의 선택 가능성이 없어 제시한 모형이 적합도가 좋다고 해서 최적의 모형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과 수정지수를 통한 모형의 수정은 연구자가 분석하는 특정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수정모형을 일반화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러므로 단일모형 평가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대안모형을 통한 평가 방법이다(홍세희, 2007). 본 연구자는 대안모형 평가방법으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간접 및 직접모형에 기초하여 최적의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주관적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청년 창업가의 역량 특성인 기업가 역량, 관리역량, 기술역량, 창의역량이 기회발견에 미치는 효과와 기회발견이 기회활용을 통해 창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완전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위한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대안모형에서는 직접적인 효과와 매개변인을 통한 직, 간접적인 효과를 살펴보는 것으로 두 가지 대안모형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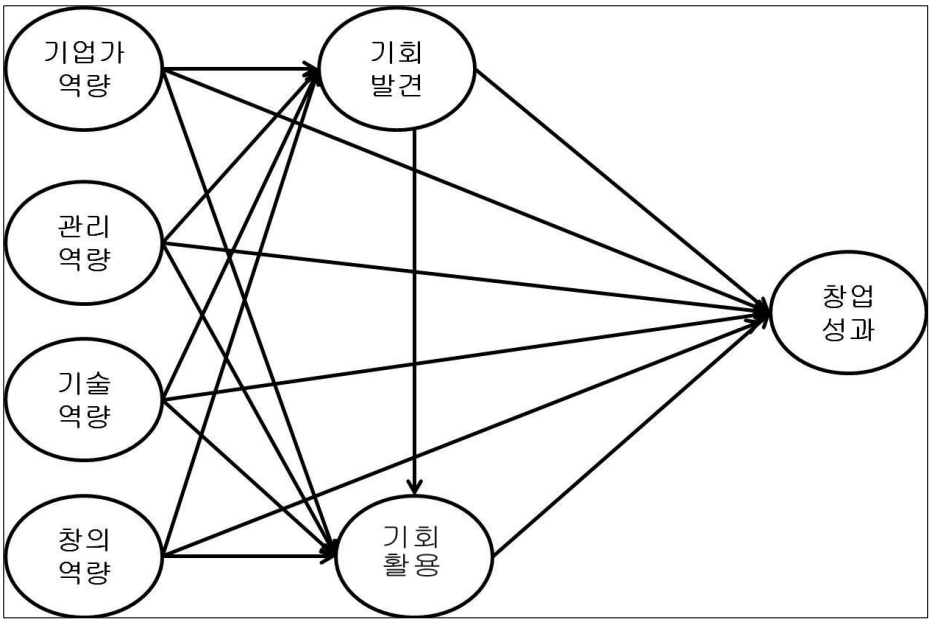
이 두 모델을 비교해보고자 그림 <5-2>과 <5-3>, <5-4>에 제시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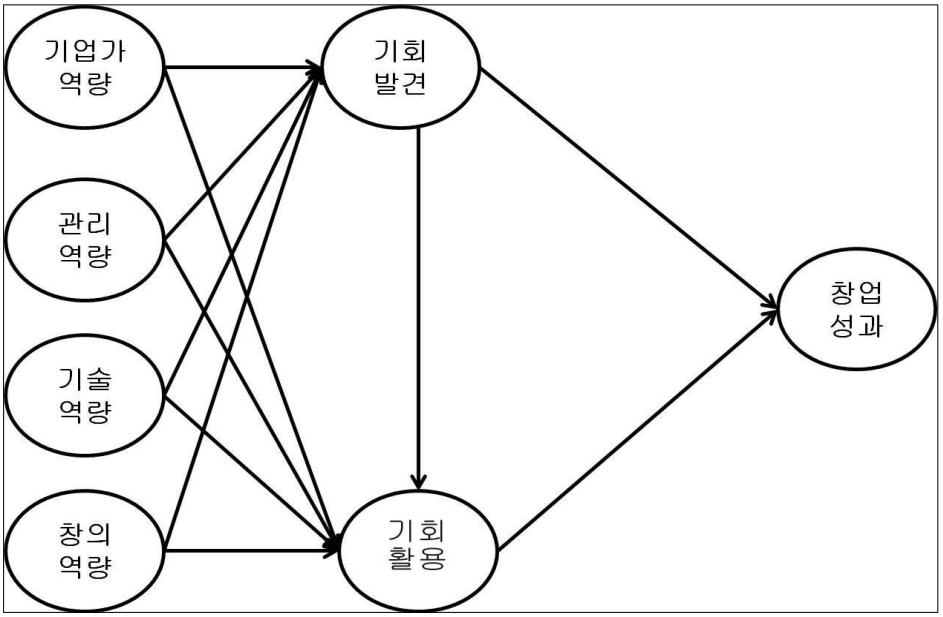
<그림 5-2> 연구모형



<그림 5-3> 대안모형 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5-4> 대안모형 2

<표 5-10>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모형 적합도

	χ2	df	NFI	TLI	CFI	RMSEA
연구모형	915.955***	399	.894	.913	.924	.062
대안모형1	877.787***	390	.831	.868	.881	.066
대안모형2	900.234***	394	.862	.878	.877	.064

*** p<.001

본 연구에서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적합도 지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이들을 절대적합도지수, 증분적합도지수, 간결적합도지수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절대 적합도 지수는 연구모형이 입력자료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이 지수는 연구모형을 다른모형과 비교하지 않으며 그 자체를 평가하므로 절대적합도 지수라고 한다. 다음으로 증분적합도 지수는 연구모형이 다른 모형에 비해 얼마나 적합도가 높은가를 평가하는 지수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여기에 해당하는 지수는 NFI, NNFI, TLI, CFI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을 검증해야 함으로 절대적합도지수는 적절치 않으며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 비교에 적절한 증분적합도지수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자 한다(김계수. 2009). 세 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는 다음 <표 5-7>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χ2=915.955(p.<.001)로 나타나 귀무가설을 기각하였지만 적합도 지수인 NFI=.894, TLI=.913, CFI=.924 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90이상이며, RMSEA=.062는 .08 이하로 나타나 이 모형이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안모형1의 경우 χ2=877.787(p.<.001)로 나타나 역시 귀무가설을 기각하였지만 적합도 지수인 NFI=.831 TLI=.868, CFI=.881 모두 비교적 적합한 지수로 나타났으며 , RMSEA=.066는 .08 이하로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대안모형2의 경우 χ2=900.234(p.<.001)로 나타나 역시 귀무가설을 기각하였지만 적합도 지수인 NFI=.862 TLI=.878, CFI=.878 모두 비교적 적합한 지수로 나타났으며 , RMSEA=.064는 .08 이하로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세 모형 모두 비교적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RMSEA는 좋은 모형임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세 가지 모형 중에 연구모형이 가장 작게 나타나고(연구모형 RMSEA=.062, 대안모형1 RMSEA=.064, 대안모형2 RMSEA=.066) 있고 연구모형이 대안모형 1과 2보다 청년창업가의 기회발견과 창업행동을 더 잘 설명해 줌을 시사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세 가지 모형 중 연구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표 5-11> 는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경로계수를 비교한 것이다. 각 값들은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에서 비슷한 값과 부호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유의도 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안모형과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에 대한 비교결과는 다음 <표 5-11>에 제시되어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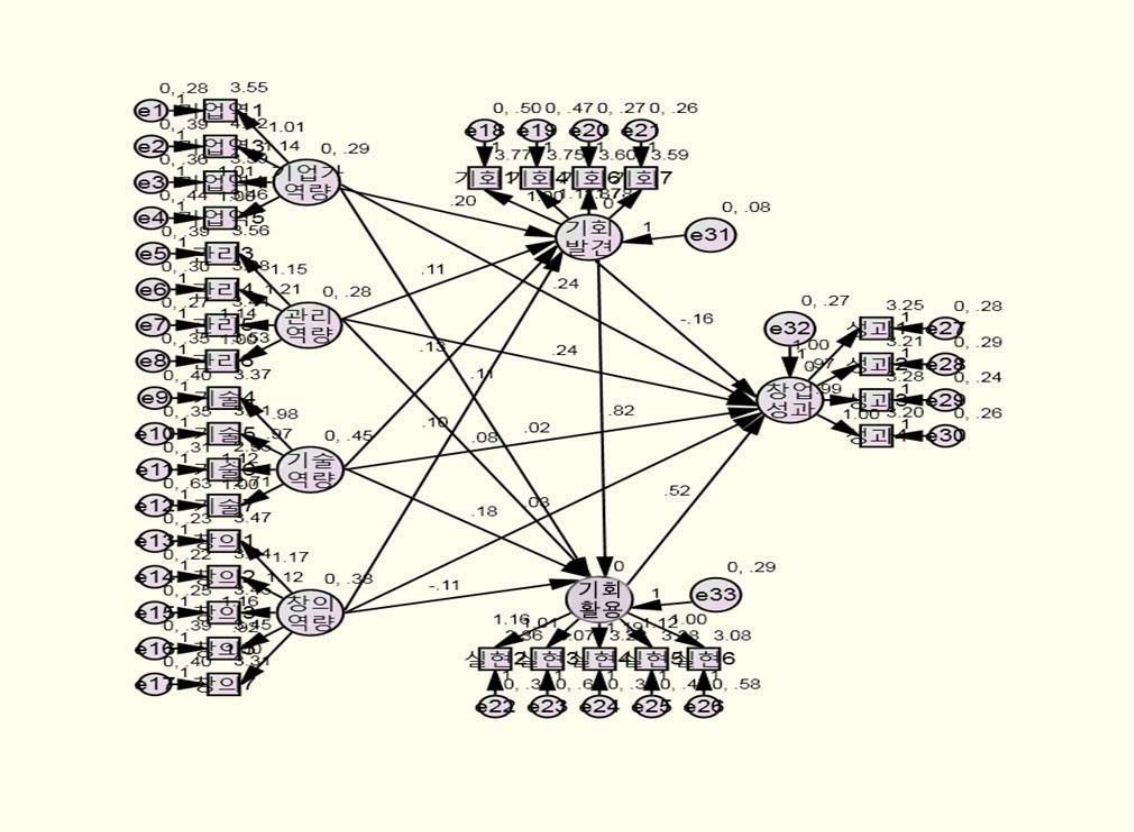
<표 5-11> 연구모형과 대안모형 비교 경로계수 (표준화 추정치)

			대안모형1		대안모형2		연구모형	
			β	t	β	t	β	t
기업가 역량	→	기회발견	.319***	3.810	.326***	3.858	.333***	3.939
기업가 역량	→	기회활용	.091	1.309	.107	1.309		
기업가 역량	→	창업성과	.203**	2.971				
관리역량	→	기회발견	.177*	2.478	185.*	2.574	.192**	2.691
관리역량	→	기회활용	.065	1.022	.082	1.289		
관리역량	→	창업성과	.197**	3.159				
기술역량	→	기회발견	.264***	3.430	.262***	3.412	.297***	3.749
기술역량	→	기회활용	.187**	2.775	.189*	2.808		
기술역량	→	창업성과	.016	.251				
창의역량	→	기회발견	.187**	2.710	.187**	2.711	.166*	2.484
창의역량	→	기회활용	-.103	-1.685	-.101	-1.650		
창의역량	→	창업성과	.028	.477				
기회발견	→	기회활용	.427***	4.276	.412***	4.161	.548***	5.261
기회발견	→	창업성과	-.083	-.994	.101	1.359		
기회활용	→	창업성과	.513***	6.045	.547***	6.371	.587***	7.891

*p<.05, **p<.01, *** p<.00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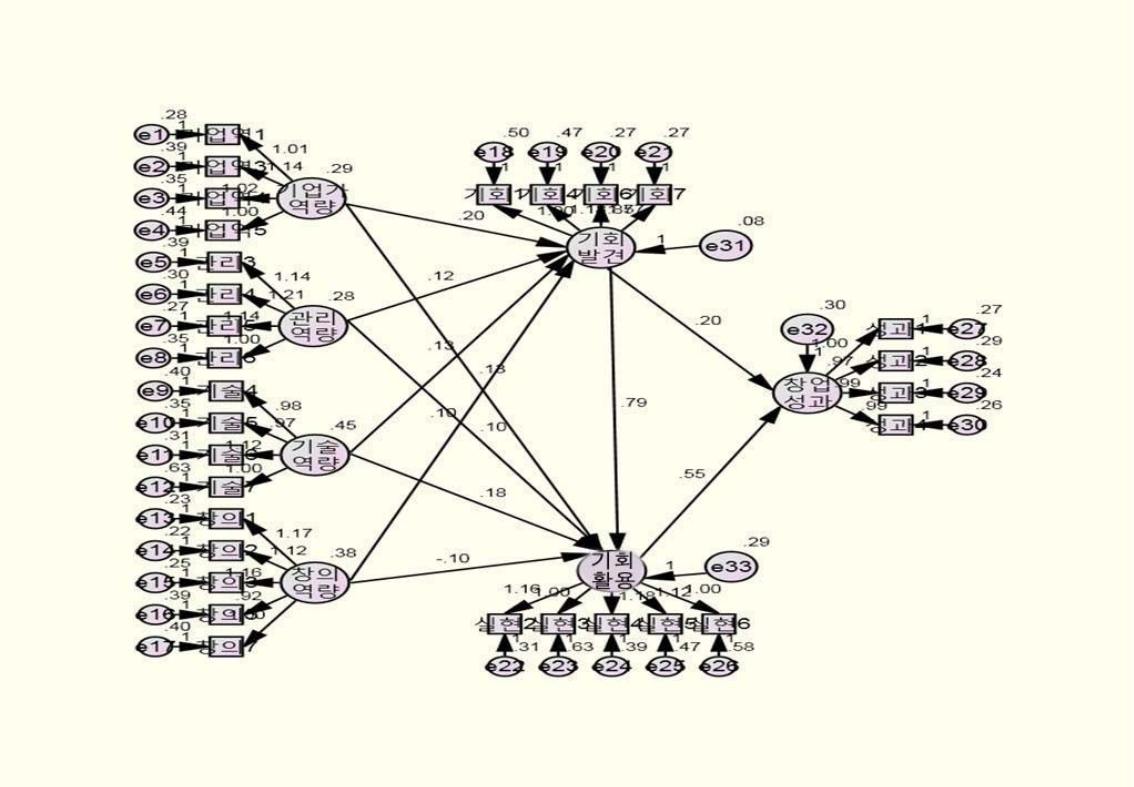


<그림 5-5> 대안모형 1의 경로분석

먼저 대안모형 1의 경우 기업가적 역량이 기회발견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보면, 청년창업가의 기업가적 역량은 기회발견에 유의미한 영향력(t=3.810, p<.000)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기업가적 역량은 실행행동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창업성과에도 역시 의미 있는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관리역량은 기회발견에 유의미한 영향력(t=2.478, p<.05)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관리역량은 실행행동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창업성과에도 역시 의미 있는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청년창업가의 기술역량은 기회발견에 유의미한 영향력(t=3.430, p<.000)을 행사하였으며 기술역량은 실행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t=2.775, p<.001)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기술역량은 창업성과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청년창업가의 창의역량은 기회발견에 유의미한 영향력(t=2.710, p<.001)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창의역량은 실행행동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성과에도 역시 의미 있는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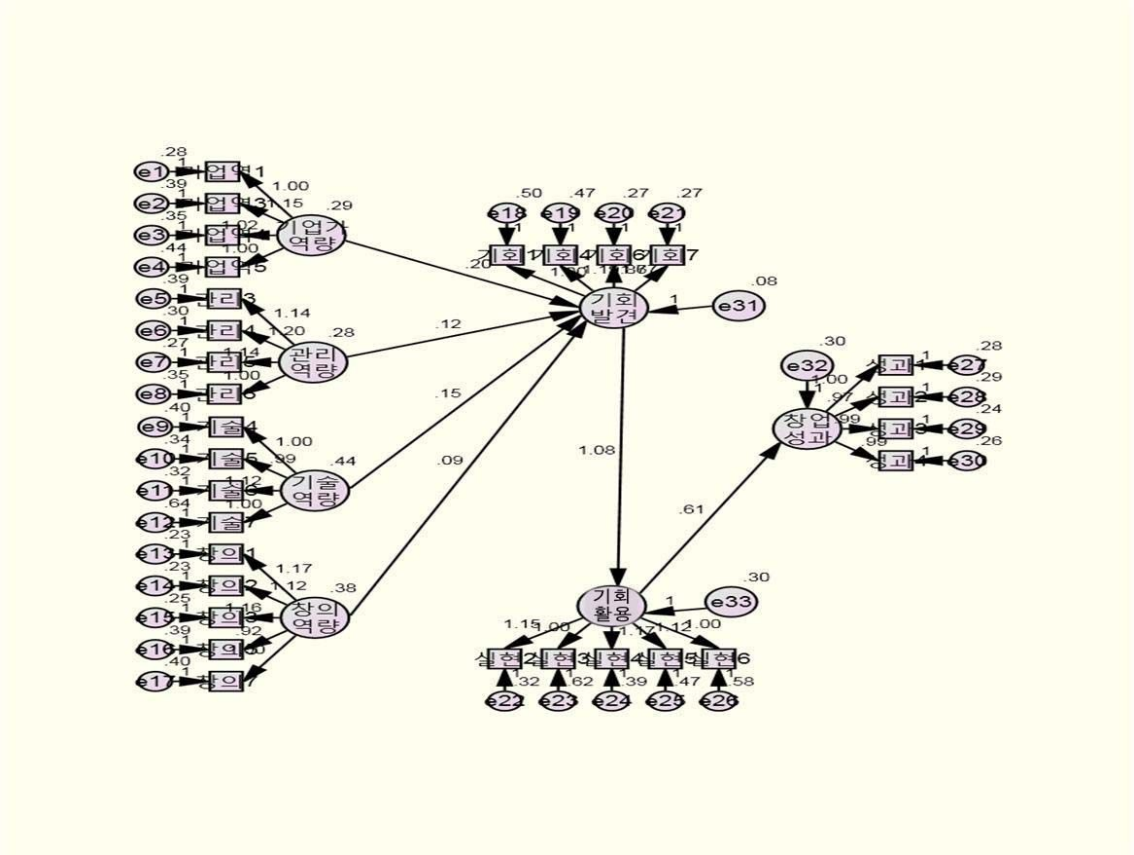


<그림 5-6> 대안모형 2의 경로분석

대안모형 2의 경우 청년 창업가의 기업가적 역량은 기회발견에 유의미한 영향력(t=3.858, p<.000)을 미쳤으나 실행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창업가의 관리역량은 기회발견에 유의미한 영향력(t=2.574, p<.05)을 미쳤으며 실행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창업가의 기술적 역량은 기회발견에 유의미한 영향력(t=3.412, p<.000)을 미쳤으나 실행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창업가의 창의적 역량은 기회발견에 유의미한 영향력(t=2.711 p<.001)을 미쳤으나 실행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요인인 기회발견은 실행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t=4,161, p<.000)을 미쳤으며 실행행동은 창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력(t=6.371, p<.00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5-7> 연구모형 경로분석

연구모형의 경우 청년창업가의 기업가 역량과 관리역량, 기술역량, 창의역량 모두 기회발견에 유의미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회발견은 기회활용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며 기회활용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나 경로에 따른 분석 모두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창업가의 기업가 역량은 기회발견에 유의미한 영향력(t=3.939, p<.000)을 행사하였으며 관리역량은 기회발견에 유의미한 영향력(t=2.691, p<.001)을 행사하였다. 기술역량은 기회발견에 유의미한 영향력(t=3.749, p<.000)을 행사하였으며 청년창업가의 창의역량도 기회발견에 유의미한 영향력(t=2.484, p<.05)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경우 매개요인인 기회발견은 기회활용에 유의미한 영향력(t=5.261, p<.000)을 행사하였으며 기회활용은 창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력(t=7.891, p<.000)을 행사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4.3 직접효과 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는 다음 <표5-12>에 제시되어 있다. 유의수준 .05에서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창업가의 기업가 역량과 관리역량, 기술역량, 창의역량 모두 기회발견에 유의미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회발견은 기회활용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며 기회활용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나 경로에 따른 분석 모두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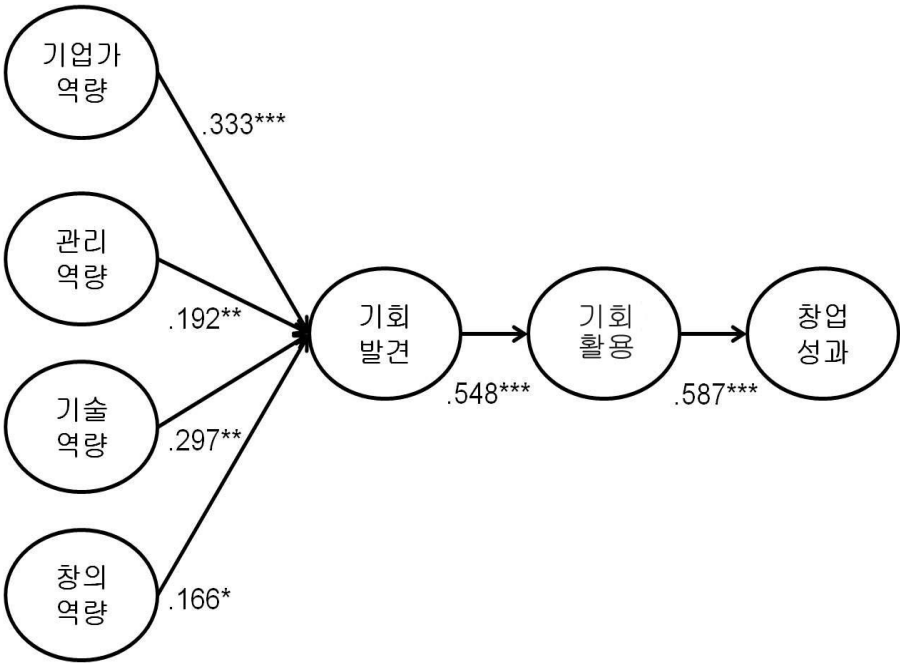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	p
기업가역량	→	기회발견	.204	.333***	3.939	.000
관리역량	→	기회발견	.121	.192**	2.691	.007
기술역량	→	기회발견	.148	.297***	3.749	.000
창의역량	→	기회발견	.089	.166*	2.484	.010
기회발견	→	기회활용	1.080	.548***	5.261	.000
기회활용	→	창업성과	.607	.587***	7.891	.000

$p<.05$, $^{**}p<.01$,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창업가의 기업가 역량은 기회발견에 유의미한 영향력(t=3.939, $p<.000$)을 행사하였으며 관리역량은 기회발견에 유의미한 영향력(t=2.691, $p<.001$)을 행사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5-8> 경로계수

기술역량은 기회발견에 유의미한 영향력(t=3.749, p<.000)을 행사하였으며 청년창업가의 창의역량도 기회발견에 유의미한 영향력(t=2.484, p<.05)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요인인 기회발견은 기회활용에 유의미한 영향력(t=5.261, p<.000)을 행사하였으며 기회활용은 창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력(t=7.891, p<.000)을 행사하였다.

5.4.4 간접효과 확인(매개효과 확인)

매개변수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Baron & Kenny(1986)의 제안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매개효과를 직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제안된 공식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두 변수의 간접효과는 외생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효과와 매개변수가 내생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곱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Z = \frac{ab}{\sqrt{(SE_a^2 SE_b^2 + a^2 SE_b^2 + b^2 SE_a^2}}$$

a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간의 비표준화 회귀계수이고,
b는 매개변인과 종속변인간의 비표준화 회귀계수이며,
SE_a는 a의 표준오차,
SE_b는 b의 표준오차이다.

청년창업가의 기회발견과 기회활용의 매개변인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obel test equation "z-value = a*b/SQRT(a^2*SE_b^2+b^2*SE_a^2)"을 이용하였다. soble-test를 통한 결과가 <표 5-12>에 제시되었다. 유의미한 매개변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기회발견은 청년창업가의 역량 즉 기업가 역량, 관리적역량, 기술역량, 창의역량과 기회활용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회활용은 기회발견과 창업성과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1, 1-2, 1-3, 1-4의 역량과 기회활용의 관계에서 기회발견이 매개한다는 가설은 모두 지지되었다. 먼저, 청년 창업가의 기업가역량과 기회활용의 관계에서 기회발견의 매개효과는 유의미 하였다(z=3.146, p<.01). 다음으로 관리역량과 기회활용의 관계에서 기회발견의 매개효과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z=2.395, p<.05).

<표 5-13> 매개변인 효과 분석

경 로	z	p
1-1 기업가역량 → 기회발견 → 기회활용	3.146**	지지
1-2 관리역량 → 기회발견 → 기회활용	2.395*	지지
1-3 기술역량 → 기회발견 → 기회활용	3.028**	지지
1-4 창의역량 → 기회발견 → 기회활용	2.238*	지지
기회발견 → 기회활용 → 창업성과	4.380***	지지

*p<.05, **p<.01, *** p<.001

기술역량과 기회활용의 관계에서 기회발견의 매개효과 역시 유의미 하였다(z=3.028, p<.01). 창의역량과 기회활용의 관계에서도 기회발견의 매개효과는 유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z=2.238, p<.05)

그리고, 가설 2-1, 2-2, 2-3, 2-4의 역량과 창업성과의 관계에서 기회활용이 매개한다는 가설 역시 모두 지지되었다. 먼저, 기업가역량과 창업성과의 관계에서 기회활용의 매개효과는 유의미 하였다(z=3.513, p<.05). 관리 역량과 창업성과의 관계에서 기회활용 역시 매개효과는 유의미 하였다(z=2.544, p<.05). 기술역량과 창업성과의 관계에서도 기회활용는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여주었다(z=3.349, p<.05).

마지막으로, 창의역량과 창업성과의 관계에서 기회활용의 매개효과는 역시 유의미하였다(z=2.358, p<.05). 기회발견과 창업성과의 관계에서도 기회활용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여주었다(z=4.380, p<.001). 기회발견은 기회활용을 통해서 창업성과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5.4 가설 검증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의 가설 검증에 대한 요약은 <표 5-14>과 <표 5-15> 에 제시되어 있다. 직접적인 효과는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매개변인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obel test equation을 이용하였다.

먼저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가설을 살펴보면 가설 Ⅰ“청년 창업가의 역량특성이 기회발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며 이 중 가설 Ⅰ-1 “청년 창업가의 기업가역량이 기회발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에서 기업가역량이 기회발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으며 유의한 영향력(t=3.939, p<.000)을 행사하여 가설Ⅰ-1은 지지되었다. Ⅰ-2 “청년 창업가의 관리역량이 기회발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에서 관리역량은 기회발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으며 유의한 영향력(t=2.691, p<.001)을 행사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5-14> 가설 검증표 1

		β	t	결과
Ⅰ-1	기업가역량 → 기회발견	.333***	3.939	지지
Ⅰ-2	관리역량 → 기회발견	.192**	2.691	지지
Ⅰ-3	기술역량 → 기회발견	.297***	3.749	지지
Ⅰ-4	창의역량 → 기회발견	.166*	2.484	지지
Ⅱ	기회발견 → 기회활용	.548***	5.261	지지
Ⅲ	기회활용 → 창업성과	.587***	7.891	지지

*p<.05, **p<.01, *** p<.001

가설 Ⅰ-3 “청년 창업가의 기술역량이 기회발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에서 기술역량은 기회발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으며 유의한 영향력(t=3.749 p<.000)을 행사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가설 Ⅰ-4 가설 “청년 창업가의 창의역량이 기회발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에서 관리역량은 기회발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으며 유의한 영향력(t=2.484, p<.05)을 행사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따라서 가설 Ⅰ“청년 창업가의 역량특성이 기회발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은 모두 지지되었다.

가설 Ⅱ “청년 창업가의 기회발견이 기회활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청년 창업가의 기회발견이 기회활용에 유의미한 영향력(t=5.261, p<.000)을 보여 가설 Ⅱ는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설 Ⅲ “청년 창업가의 기회활용이 창업성과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 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청년 창업가의 기회활용이 창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력(t=7.891, p<.000)을 보여 가설 Ⅲ은 지지되었다.

다음은 가설 Ⅳ “청년창업가의 기회발견과 기회활용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가설은 <표 5-13> 검증표 2에서 확인 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5-15> 가설 검증표 2

	경 로	z	결과
Ⅳ-1	기업가역량 → 기회발견 → 기회활용	3.146**	지지
Ⅳ-2	관리역량 → 기회발견 → 기회활용	2.395*	지지
Ⅳ-3	기술역량 → 기회발견 → 기회활용	3.028**	지지
Ⅳ-4	창의역량 → 기회발견 → 기회활용	2.238*	지지
V	기회발견 → 기회활용 → 창업성과	4.380***	지지

*p<.05, **p<.01, *** p<.001

가설 Ⅳ "청년창업가의 기회발견은 청년창업가의 역량과 기회활용간의 관계에 매개변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기회발견은 청년창업가의 기업가역량과 기회활용의 매개효과에 유의미한 효과(z=3.146, p<.01)를 보여 가설Ⅳ-1은 지지되었다. 그리고 기회발견은 청년창업가의 관리역량과 기회활용의 매개효과에 유의미한 효과(z=2.395, p<.05)를 보여 가설Ⅳ-2도 지지되었다.

가설Ⅳ-3 기회발견은 청년창업가의 기술역량과 기회활용의 매개효과에 유의미한 효과(z=3.028, p<.01)를 보여 가설Ⅳ-3은 지지되었다. 그리고 기회발견은 청년창업가의 창의역량과 기회활용의 매개효과에 유의미한 효과(z=2.238, p<.05)를 보여 가설Ⅳ-4도 지지되었다. 따라서 가설 Ⅳ "청년창업가의 기회발견은 청년창업가의 역량과 기회활용간의 관계에 매개변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가설은 모두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설 Ⅴ "기회발견과 창업성과간의 관계를 기회활용이 매개역활을 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매개변인 효과(z=4.380, p<.000)를 보이고 있어 가설 Ⅴ "기회발견과 창업성과간의 관계를 기회활용이 매개역활을 할 것이다 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기회발견은 청년 창업가의 역량과 기회활용에 유의미한 매개변인 이였으며 기회활용은 기회발견과 창업성과에 유의미한 매개변인임을 가설검증결과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본 연구에서는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모형은 일반적으로 대안모형을 별도로 구상하여 제안모형보다 더 나은 적합도를 가진 모형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시도로 종종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안모형을 구상할 때는 대안모형이 기반을 두고 있는 경쟁 이론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안모형과 제안모형을 비교하게 되는데, 비교의 핵심은 모형의 간명한 창업성과 적합도를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창업에 대한 기회발견과 기회활용,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청년 창업가의 기업가역량, 관리역량, 기술역량, 창의역량을 외생변인으로 기회발견과 기회활용, 창업성과를 내생변인으로 설정하여 최적의 모형을 찾고자 대안모형을 통한 평가방법을 이용하였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간접 및 직접모형에 기초하여 최적의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청년 창업가의 기업가역량, 관리역량, 기술역량, 창의역량이 기회발견과 기회활용을 통한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직접적인 효과를 포함한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만을 살펴보는 것을 대안모형1,2로 선정하여 비교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 세 모형을 비교에 χ^2 검증의 차이 값을 비교하였는데 χ^2 검증에서 자유도 6이 감소할 때 필요한 12.59의 임계치를 넘어서는 값으로 이 두 모형은 자료를 설명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었다. 연구모형이 복잡하지만 더 단순한 대안모형보다 유의미한 정도로 자료를 잘 설명하므로 복잡한 연구모형을 선택한다. χ^2 값이 연구모형이 더 작으며 적합도 지수들도 NFI, CFI, RMSEA값은 연구모형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 간접효과를 보는 모형보다는 매개효과를 보는 모형이 더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모형 비교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산출된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들을 고려해 볼 때 본 분석모형은 표본자료와 비교적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모형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하고 다음 단계인 가설검증을 위한 Amos 추정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의미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본 연구에서는 청년 창업가의 역량 특성인 기업가역량, 관리역량, 기술역량, 창의역량을 변수로 하여 이러한 변수들이 기회발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기회발견이 기회활용과 청년창업가의 역량에 매개변인 역할을 하며 기회활용은 기회발견과 창업성과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청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창업가의 기업가역량, 관리역량, 기술역량, 창의역량은 기회발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청년 창업가의 역량 특성 인 기업가역량, 관리역량, 기술역량, 창의역량은 기회발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증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기회발견(discovery)은 다양한 창업활동, 노력 및 미래기회 초점을 의미하며(Baron, 2008; Foo. Uy and Baron, 2009), 사업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창업을 실행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인적 자본 즉 창업가의 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Shane, 2003)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가 있었으며 Zahra & Nielsen(2002)은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에 대해 내부인력 특성과 역량이 사업화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장우(2001)은 사업화 전략모델개발 연구에서 사업기회 도출에 있어 사업화 영향요인은 창업가특성을 제시한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업기회를 포착하는데 있어서 창업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청년 창업가의 역량 중에서도 기업가역량, 관리역량, 기술역량, 창의역량은 사업기회 포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청년의 창업에 있어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사업기회 발견을 위해서는 청년에 대한 기업가 역량, 기술, 관리, 창의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역량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기회활용은 기회발견과 창업성과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증결과는 청년 창업가가 성공적인 창업을 하고 창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기회발견을 통해 기회활용으로 이여지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년 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이 이루어 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검증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데 Shane & Venkataraman(2000)은 기회 인식 과정은 초기 인식과 나아가 모험정신에 대한 증진을 의미하는 반면, 활용은 새로운 모험정신에 대한 행동의 결정과 이와 관련된 행동을 의미하며 초기 창업가들의 활동에 있어 창업가적인 기회의 인식과 그를 통한 활용 즉, 창업실행에 옮겨지는 창업과정의 개념화한 이론(Davidsson, 2003, Shane & Venkataraman, 2004)과 일치한다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들을 2단계 과정으로 첫째는 사업 기회발견(Discovery)이며 이러한 사업기회 발견을 통해 실행(Exploitation)행동으로 이어진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창업가의 역량특성은 실행이나 창업성과에는 직접적인 영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향을 주지 않으나 다른 매개변수 즉 기회발견과 기회활용을 통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창업가의 창업실행과 성공적인 창업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구분된 개념과 그 과정이 실증적으로 밝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진다. 즉, 청년창업이 바로 사업화와 창업성공으로 이어지는 것 보다는 기회발견과 기회활용과 연계하여 청년 창업의 성과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수립한 청년 창업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 즉 교육 및 재정 지원 등의 다양한 정부나 지자체 등의 활동에 대해 향후 올바를 방향에 관해 제시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 따라 청년 창업가의 창업을 유도하거나 이러한 과정을 창업의 과정으로 제시함으로써 청년 창업가의 창업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Ⅵ. 결 론

6.1 연구결과의 요약

최근 들어 경제위기로 침체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세계경기 변동에 가장 민감한 국내경제도 성장률이 하락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취업기회의 감소로 인한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청년의 일자리창출과 창업활성화를 통한 신 성장 동력의 확보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창업가의 역량특성이 창업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기는 초기창업가 행동단계에서 사업기회발견 및 창업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창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초기 창업가 행동을 매개로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청년 창업가의 역량 즉 기업가역량, 관리역량, 기술역량, 창의역량 모두 초기창업가 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초기청년창업가 행동 또한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행동을 매개로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창업가의 역량 특성 인 기업가역량, 관리역량, 기술역량, 창의역량은 기회발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발견(discovery)은 사업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창업을 실행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인적 자본 즉 창업가의 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Markman, 2007; Shane, 2003)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Zahra & Nielsen(2002)은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에 대해 내부인력 특성과 역량이 사업화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제시한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업기회를 포착하는데 있어서 창업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청년 창업가의 역량 중에서도 기업가역량, 관리역량, 기술역량, 창의역량은 사업기회 포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청년의 창업에 있어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사업기회 발견을 위해서는 청년에 대한 기업가 역량, 기술, 관리, 창의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역량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기회활용은 기회발견과 창업성과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증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결과는 청년 창업가가 성공적인 창업을 하고 창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기회발견을 통해 기회활용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년 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Shane & Venkataraman(2000)은 기회 인식 과정은 초기인식과 나아가 모험정신에 대한 증진을 의미하는 반면, 활용은 새로운 모험정신에 대한 행동의 결정과 이와 관련된 행동을 의미하며 초기 창업가들의 활동에 있어 창업가적인 기회의 인식과 그를 통한 활용 즉, 창업실행에 옮겨지는 창업과정의 개념화한 이론(Davidsson, 2003, Shane & Venkataraman, 2004)과 일치한다. 이러한 관점들을 2단계 과정으로 첫째는 사업 기회발견(Discovery)이며 사업기회 발견을 통해 실행(Exploitation)행동으로 이어진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창업가의 역량특성은 실행이나 창업성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나 다른 매개변수 즉 기회발견과 기회활용을 통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년 창업가의 창업실행과 성공적인 창업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구분된 개념과 그 과정이 실증적으로 밝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진다. 즉, 청년창업이 바로 사업화와 창업성공으로 이어지는 것 보다는 기회발견과 기회활용과 연계하여 청년창업의 성과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수립한 청년 창업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 즉 교육 및 재정지원 등의 다양한 정부나 지자체 등의 활동에 대해 향후 올바른 방향에 관해 제시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 따라 청년 창업가의 창업을 유도하거나 이러한 과정을 창업의 과정으로 제시함으로써 청년 창업가의 창업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의 학문적시사점으로는 첫째 청년 창업가의 역량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주로 경영성과 와의 관계를 다룬 데 반해 본 연구는 청년 창업가의 역량을 초기 창업가 행동을 매개로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창업가의 역량이 기회발견과 기회활용 그리고 창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청년 창업가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이 사업기회 발견에 영향을 미쳐 아이디어 차원의 기회를 창업실행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창업성과에 영향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제 성장률이 정체되고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특히 청년 실업률이 높아져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년의 창업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만이 국가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 청년창업이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도 잠재적 청년창업가들이 실업의 상태로 남아있기 보다는 창업을 결심하고 실천해야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특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연구가 창업을 계획하는 청년예비창업가나 잠재적 청년창업가들에게 창업가의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업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함에 있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설문응답자의 태도에 따라 조사결과가 좌우되는 경향을 피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 시점이 현재가 아닌 창업을 계획하고 있던 과거 시점이므로 창업가의 창업 당시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추측성 응답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 창업가의 역량과 기회발견, 기회활용 그리고 창업성과 등에 관한 설문은 창업가의 주관적 평가만을 적용하였고 창업팀 구성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한계가 있어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다.

넷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기회발견과 기회활용을 함께 포괄적으로 창업행동의 정의하여 사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회발견과 기회활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정의함에 있어 다소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인연구가필요하다.

본 연구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요인들을 선정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연구모형의 설계를 시도하여 분석하였으나 기회발견과 기회활용은 연구자 마다 달리 분류하고 있어 어떤 변수를 취하는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학문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동의가 되는 변수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청년 창업기업의 특성을 벤처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정책에 따른 창업실행 정도를 조절효과를 추가로 진행한다면 보다 의미 있고 심화시킨 연구결과를 얻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창업성과 중 경영성과를 현실적인 재무성과 조사의 한계로 청년 창업가의 주관적 판단 항목으로 연구모형을 제시했는데 향후 실제 재무성과 지표를 반영한 연구를 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강병서, 김계수(2005), 『한글 SPSS 12K 사회과학통계분석』, SPSS 아카데미.

강병오(2011), "중소기업CEO의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강상미(2002), "창업자·환경·경영전략·조직특성이 벤처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강성두, 강영순(2012), "중소기업 경영자의 기업가정신과 조직구성원의 목표지향성이 조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구조방정식 모형 접근", 한국 콘텐츠학회 논문집, 12(10), 439-451.

강성일(2007), "관광중소기업 소유경영자의 기업가정신과 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강순빈(2012), "창업자의 창업동기 및 기업가정신 그리고 창업사전준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기업 창업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산업, 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봉상, 용세중, 이상천(2003), "벤처기업의 성과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경영연구」, 6(2), 한국중소기업학회, 5-31.

구언회(2006), "기업가정신과 벤처기업의 성장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계수(2005),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SPSS 아카데미.

김경애(2007), "여성 창업교육과 외식사업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경영대학원.

김대호(2004), "우리나라 창업보육센터의 발전방안, 「대한경영학회지」 4, 1151-1176.

김 렬, 성도경, 이환범, 송건섭, 조태경, 이수창(2005), 『사회과학 연구 및 논문작성을 위한 통계분석의 이해 및 활용』, 도서출판 대명.

김문성(2012), "TEC알고리즘 창업교육 만족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자 역량의 조절효과",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김민수(2011), "창업보육기업의 창업자 특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글로벌 창업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김상순(2011), “정부의 창업지원제도가 창업과정특성과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김세종(2005), “주요국 창업제도의 비교 연구 및 정책적 시사점: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원. 5(14).

김영운(2003), “중소기업의 재무적 경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영희(2004), “우리나라 청년실업대책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 사회복지 대학원.

김완재(2007), “창업자 특성과 소기업 창업성과 간 관계에 대한 연구”, 한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윤석(2005), “한국 청년실업의 발생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김용태(2009), “창업교육의 효과 및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창업대학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재욱(2013), “기업가정신과 개인적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재호(2013),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지지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정자(2011),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과 그 실효성에 관한 연구”, 충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종하(2009), “청년창업자의 창업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소상공인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형철(2009), “벤처기업의 창업가특성과 차별화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권기대, 이상환(2003), “벤처기업-대기업 협력에 대한 실증적 연구 : 의존성, 권력, 신뢰를 중심으로”, 한국 중소기업학회 「벤처경영연구」 6(2).13, 53-75.

권미영(2010), “기업가 특성, 기술능력 및 네트워크 특성이 기술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권상집(205),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기회 포착 및 기회 실현 과정: 탐색적 사례연구”, 한국과학기술원, 10.

나성숙(2005), “한국 청년실업의 실태와 대응 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상균(2008), “중소기업의 기술지향성과 영향요인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 12(1),169-178.

목영두(2011), “대학의 창업교육 체계화를 위한 창업학 교육과정 개발 모형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문우식(2010), “창업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박경문, 박종관(1995), “창업가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논문집」 16(1), 305-321.

박동건, 최대정(2003), “창업자의 역량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도 분석”,「한국심리학회지」 16(2), 61-91.

박명수(2011), “청년창업의 기대와 현실, 대한민국 청년: 창업에 길을 묻다”, 한국 창업포럼 주제발표자료집, 59-71.

박상문(2004), “국내 벤처기업의 창업팀 특성, 기술전략 및 성과간의 관계”, 「벤처경영연구」, 7(2), 44-45.

박상용(2004), “벤처기업 CEO의 기업가정신, 구성원, 임파워먼트 조직유효성의 관계에 대한 구조적모형”,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시사, 강성일(2007),“개인특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한국관광학회」, 31(2), 187-204.

박재환, 김용태(2009), “창업교육 만족도 및 참여 동기가 창업교육 효과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2(2), 959-977.

박정기(2002),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적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춘래, 이남주, 이충섭(2010), “소상공인의 창업가 특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재무와회계정보저널」, 10(1), 150-152.

백윤정(2005), “여성창업자의 배태조직경험과 사회자본 그리고 직장가정갈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연구, 175-203.

서창수(2002), “한국 벤처기업 경영패턴의 변화에 관한 연구-기업의 성장단계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성창수(2009), “기업가 지향성, 시장 지향성,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은실(2011), “청년창업자의 창업특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송준일(2009),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창업지원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송조호, 손달호(2005), “창업자의 특성이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학술논문, 38(2), 53-79.

삼성경제연구소 (2012). “기업 내의 조직 창의성 모델”, Seri 연구 보고서.

신진수(2003), “청년실업의 발생원인 및 해소방안”, 창원대학교.

안태욱(2012), “청년 창업가의 특성과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희순(2002), “한국벤처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현봉(2011),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 자료.

용세중(2003), “창업이론 개발을 위한 통합 개념모델”, Working Paper,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연호(2009),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경력지향성과 사회문화요인 그리고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의사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윤방섭(2004), "창업 의지의 결정요인: 개인특성 및 환경요인",「산학경영연구」, 17(2), 89-105.

윤종록(2003), “조직기업가 정신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대한경영학회지」, 37, 869-888.

윤종록, 김형철(2009), “창업가의 역량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생산성논집」, 23(4), 401-427.

위봉수(2012),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운영성과 분석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종석, 이용탁(1999), “벤처기업 기업가정신과 성과와의 관계”, 부산대학교 노동문제 연구소.

은종성(2008) 『인터넷 쇼핑몰 실무 지침서』, 길벗출판사, 287-289.

이길형(2009), “소규모 지식기업의 창업성공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기업경영학회, 16(3), 143-162.

이덕로・김태열 (2008). 직무특성이 개인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선행적 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경영학연구」, 37(3), 443-47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승배(2013), “중소벤처기업 창업자의 사회적자본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신모(2006), “개인특성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 중소기업학회, 1(1), 124-152.

이장우(2000),『벤처창업』, 법문사,

이장우(2001)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성공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인사조직연구』, 9(2), 59-92.

이지영(2009), “고학력 청년층의 고실업현상의 원인과 대책”, 인천대학교 대학원.

이지우(2000), “개인특성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 「중소기업연구」, 22(1), 121-146.

이춘우(1999), “조직앙트라프러뉴십의 역할과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춘우(2005),“벤처기업의 개념적 특성과 본질에 관한 연구”,「경영학연구」, 34(2), 315-348.

임채관·김향란(2008), “여성창업자의 창업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실천경영 연구」3(1), 15-142.

장영주(1996), “창업 중소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57-63.

장대성(2000), “경영 및 공학계열 대학생들의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12, 63-82.

전대열·윤현덕(2011), “기술혁신지원제도가 벤처기업의 기업가정신과 기술혁싱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6(3).

전창수(2011), “기업 재무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배재대학교 컨설팅대학원.

정대율(2010), “AHP와 BSC 기법을 이용한 벤처기업 복합비지니스 지원시설 타당성 분석”, 「한국창업학회지」, 5(2), 45-73.

정대용(1996), “중소기업의 혁신전략인 기업가정신”, 기술보증월보, (55), 3-28.

정두식, 김한덕(2009), “소자본 상공인들의 창업기회 원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산업경제연구』, 2(1), 457-476.

정성한, 김해룡(2001), “소상공인 창업성공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벤처경영연구」, 4(2), 72-74.

정지용, 차민석, 배종태(2002), “배태조직 및 창업자 특성이 벤처기업 창업과정에 미치는 영향”, 「벤처경영연구」, 5(2), 72-7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지연(2008), “여성창업가의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 진주산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진수(2011) “인터넷 창업성과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병주(1999), “창업 기회원천 분석과 기회탐색의 전략적 의미”, 「한국중소기업회지」,20(1), 245-266.

조병주(1999), 『기회발견과 창업 메카닉스』, 청아출판사.

조형래(1995), “창업인의 특성, 제품혁신성 벤처기업 경영성과간의 상황적 관계”, 한국과학기술원 박사학위논문.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한국벤처연구소(2008),『2008년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2008)』최종보고서.

지용희, 이윤보, 한정화(2005),『중소기업론』, 도서출판 경문사.

채서일(2003),『사회과학조사방법론』, 학현사.

최명길, 신유섭(2009), “IT창업기업의 창업성공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1(7)

최영근, 정승화(2010),“기업가의 인적·사회적 자본이 기회 포착과 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 「벤처경영연구」, 13(1), 49-67.

최용호, 신진교 , 김승호(2003), “최고경영자, 경영전략 및 구조요인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연구」, 25(2):103-125.

최이규(2006),『구조방정식 모형』, 무역경영사.

최재원(2011), “AHP와 DEA”를 활용한 창업기업의 경영성과 개선방안 연구-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종열, 정해주(2006),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인적자원관리연구」, 13(4), 167-190.

최탁열, 이상석(2007), “여성기업의 경영자 특성과 기업성과간의 관계연구”, 「벤처창업연구」, 2(3), 123-143.

한길석(2007), “창업교육체계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2, 173-198.

홍성도(2001),『벤처기업 창업경영론』, 학문사, 79.

홍세희(2007) “경영학연구에서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용”, 「경영학연구」.

황미애(2007), “여성 창업가의 특성이 경영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국외문헌>

Amabile, T. M. (1996). Creativity in context: Update to the social psychology of creativity. Boulder, Co: Westview Press.

Ajzen,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Organizational Behaviou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 - 211.

Baron, R. A.(2009), "The Role of Affect in The Entrepreneurial proces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3, 328-340.

Barney, Jay B. and Edward J, Zajac (1994), "Compet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Toward an Organizationally-Based Theory of Competitive Advantag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5(S1), 5-9

Barringer, B. R.(1995), "The Performance Implications of Achieving a Fir Between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Strategic Management Practices",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Bateman Thomas S. and J. Michael Crant(1993), "The Proactive Component of Organizational Behavior: A Measure and Correlate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4(2), 103-118.

Baum, Robert J., Edwin A. Locke, and Ken G. Smith(2001), "A Multidimensional Model of Growt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2), 292-303

Bird Barbara(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2(3), 442-453.

Birley, S. and Norburn(1987), "Owner and Manager: The Venture 100 vs. Forturn 500",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 351-363.

Birley, S., & Westhead, P, (1994), A taxonomy of business start-up reasons and their impact on tirm growth and siz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 7-31.

Boyatzis, R. (1982). "The Competent manager: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John Wiley & Son Publishing.

Brush, C. G, T. S. Manolova and L. F. Elderman(2008), "Properties of Emerging Organizations: An Empirical Test", Journal of Business Vneturing 23(5), 594-96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urgelman Robert A.(1983),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Strategic Management: Insights from a Process Study", *Management Science*, 29(12), 1349-1364.

Buss David, M.(1987), "Selection, Evocation and Mani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214-1221.

Cardon, M.S., Wincent, J., Singh, J., & Drnovsek, M. (2009). The nature and experience of entrepreneurial pass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4, 511-32.

Case, John(1989), "The Origins of Entrepreneurship", Inc. Magazine, June, 49-62.

Carsrud, A., and M. Brannback.(2011), "Entrepreneurial Motivations: What Do We still Need to Know?"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9(1), 9-26.

Carsrud, A., and M. Brannback, Eds,(2009), Understanding the Entrepreneurial Mind: Opening the Black Box. Heidelberg: Springer.

Carter N.M.,W.B.Gartner, Kely G.Shaverand E.J.Gatewod(2003), "The career reasons of nascent entrepreneu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 13-39.

Cooper, A. C. and W. C. Dunkelberg(1987), "Old Questions, New Answers and Methodological Issues",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1(3), 11-23.

Cooper, A.C.(1986_, "Entrepreneurship and Hight Technology," In D.L Sexton, and R.W. Smilor(Eds), The Art and Science of Entrepreneurship, Cambridge, MA : Ballinger, 155-168.

Covin, I. G. and D. P. Slevin(1990), "New Venture Strategic Posture Structure and Performance: An Industry Life Cycle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2), 123-135.

Davidsson, P.(2003), "The Domain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Some Suggestions", *Cognitive Approaches to Entrepreneurship*, 6, 315-372.

Davidsson, P.(2006), "Nascent Entrepreneurship: Empirical studies and Development", *Foundations and Trends in Entrepreneurship*, 2, 1-76.

Davidsson, P.(2005), "Paul Davidsson Reynolds: Entrepreneurship Research Innovator, Coordinator and Disseminator" Small Business Economics, 24, 351-35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Davidsson, P.(2007), "Method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the Psychological study of Entrepreneurship", *The Psychology of Entrepreneurship*, 287-324.

Delmar, F. & Shane, S. (2004). Legitimating first: Organizing activities and the survival of new vent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9, 385-410.

Diochon, M., Menzies, T.V., & Gasse, Y. (2005).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art-up activities and new venture emergence: A longitudinal study of Canadian nascent entrepreneurs.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and Enterprise Development, 2, 408-26.

Elfving, J.(2008), Contextualiz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A Multiple Case Study on Entrepreneusial Cognitions and Perceptions. Turku: Abo Akademi Forlag.

Farmer, S. M Tierney, P and King-Mclntyre, K.(2003), "Employee Creativity in Taiwan: An Application of Role Identity Theor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6, 618-630.

Firms, 1i1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Robert H. Brockhaus. Sr. and others Eds., Welesley, Mas: Babson Center for Entreperneurial Studies, 383-397.

Gartner, W. B.(1989), "Some suggestions for research on Entrepreneurial traits and Characteristic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4(1), 27-37.

G. N., & Jansen, E. (1992). The Founder's Self-Assessed Competence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7(3), 223-236.

Gustafsson, J. (2006). The Worst Case Execution Time Tool Challenge. Seco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Leveraging Applications of Formal Methods, Verification and Validation, 233-240.

Hellstrom, T. C. and Berglund, H.(2002), "The Innovation Self: Exploring Self among a Group of Technological Innovation", *Journal of Management Psychology*, 17, 267-286.

Hills, G.E. (1996). Opportunity recognition: Perceptions and behaviors of entrepreneurs. Research report submitted to the Ewing Marion Kauffman Foundation, Kansas City, MO.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Kanter, R. M.(1983), “The Change Masters, Simon and Schuster”, New York, NY.

Koller, R. H.(1988), “On the Source Entrepreneurial Ideas,” In B. A. Kirchhoff, and Others(Ed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1988, Wellesley, MA : Babson Center for Entrepreneurship Studies, 194-204.

Lin, Nan(1999), “Social Network and Status Attaint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25, 467-488.

Locke, E.A., and G.P. Latham(2004), "What Should We do about Motivation Theory? Six Recommendation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9, 388-403.

Longenecher, J. G. and Moore, C. W.(1987), Small Business Management, Cincinnati, Ohio : South-Westrn Publishing CO,. 81-83.

Lussier, R.N.(1995), A Non Financial Business Versus Failure Predication Molder. Journal of mall Business Management, 33, 8-20.

Macmillan, I,C,D,M. Kulow and R. Khoulim(1989). Venture Capitalists Involvement in their Investment: Extent and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4, 27-47.

Makrman, G. D., D. B. Balkin, & R. A.Baron(2002), “Inventors and new venture formation: The effects of general self efficacy and regretful thinking,” proceeding ing The 2002 Victoria Conference on Information Processing and Entrepreneurial Cogniton, 135-151.

McClell and, David c.(1961), The Achieving Sociteh, D. Van Nortrand Company, Inc., Princeton, NJ.

McClelland, D. C.(1973). “Testing for 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1-14.

Morris, Michael H, and Pamela S. Lewis (1995),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Activity: Implications for Marketing,”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29(7), 31-48.

Nuttin, J.(1984), Motivation, Planning, and Action.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an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erwin, L. (2003) The Science of Personali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Reynolds,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Reynolds, P.W.D.. Byarave, E, Autio, L. Cox, and M. Hay(2002),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02, Executive Report. Kansas City, MO: kauffman Center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Reynolds, P. D.(2007), "New Firm Creation in the US: A PSED overview", *Foundations and Trends in Entrepreneurship*, 31-151.

Reynolds, P.D. (1991), "Sociology and Entrepreneurship .101-142. Contribution", Entrepreneurship and Theory Practice, 16(2), 47-70.

Roure, J. B., & Keeley, R. H. (1990). Predictors of success in new technology based ventures. Journal Business Venturing, 5, 221-239.

Roure, J. B., & Maidque, M. A. (1986). Linking Prefunding Factors and High-Technology Venture Success: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 295-306.

Sandberg, W.R. and C.W. Hofer(1987). Improving New Venture Performance: The Role of Strategy, Industry Structure and the Entreprenue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 5-28.

Scheinberg, S., & MacMillan, I.C. (1998), An 11 country study of motivations to start a business. in B.A Kirchhoff, W.A.Long, W.E. MacMillan, K.H. Vesper & W.E. Jr. (Ed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Wellesley 669-687.

Scott, S. G. & Bruce, R. A.(1994). Determinants of innovation behavior; A path model of individual innovation in the workpla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7, 580-607.

Sexton & Bowman(1985) "The Entrepreneur: A Capable Executive and Mor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1), 129-140.

Shapero. A.(1982).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In C. Sexton & K. Vesper(End.). The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72-90. Englewood Cliffs, NY : prentice Hall.

Shane, S.(2003), "A General Theory of Entrepreneurship: The Individual-opportunity Nexus", Cheltenham. UK: Elgar.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Shane, S. and Venkataramans, S.(2000),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 217-226.

Shane, S, Locke, E. A and Collins, C. J.(2003), “Entrepreneurial Motivat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3, 257-279.

Shepherd, D. A. (2003). Learning from Business Failure: Propositions of Grief Recovery for the Self-Employed.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8(2), 318-329.

Silvia, P. (2008). Interest: The curious emot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7, 57-60.

Spenser, L. M., McClelland, D. C., and Spencer, S.(1994). Competency assessment methods: History and state of art, Hay-McBer Research Press.

Stevenson, H. H., M. J. Roberts and H. I. Grousbeck(1994), “New Business Ventures and The Entrepreneur”, Irwin, Homewood.

Stuart,R.W.and P.A.Abeti(1987), “Start-up Venture:Toward the Prediction ofInitialSuces”, JournalofBusines Venturing, 2(3), 215-230.

Stuart, R. W., & Abetti, P. A. (1990). Impact of Entrepreneurial and Management Experience on Early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 151-162.

Steven M. Farmer, Xim Yao, Kate Kung-Mcintyre(2009), The Behavioral Impact of Entrepreneur Identity Aspiration and prior Entrepreneurial Experience, ET&P, 9(1), 1-29.

Teach, R. D., Schwartz, R. G. and Tarpley, F. A. Jr.(1989), "The Recognition and Exploitation of Oportunity in the Software Industry: A Study of Surviving

Timmons, J.,(1994), New Venture Creation :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Fourthediton, McGraw-Hill, Boston.

Timmons, J, A(2000), “New venture cretion: Entrepreneurship 2000(5thed). Homewood, IL:Irwin.

Tsai, W. and S. Ghoshal(1998), “Social Capital and Value Creation: The Role of Intrafirm Network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1(4), 464-476

Vester, K.M.(1983), “New Venture Strategies Englewood Cliffs”, NJ :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Prentice-Hall, 2.

Vesper, K.M.(1983),Three Faces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 A pilot study,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37-185.

Venkataraman, S.(1997), “The distinctive Domain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Cognitive Approaches to Entrepreneurship.*

Vesper, K. H.(1982), "Research on Education for Entrepreneurship",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dited by Calvin A. Kent, Donald L. Sexton, Karl H. Vesper, Prentice-Hal, 318-351.

Westhead, P., Ucbasaran, D., & Wright, M. (2005). Decisions, actions, and performance: do novice, serial, and portfolio entrepreneurs differ?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3(4), 393-417.

Zahra, S . A(1993), “Environment,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Financial Performance: A Toxonomic Approac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8(4), 319-34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 조사는 「청년 창업가의 역량이 창업행동과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성의껏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는 연구를 위한 통계 처리에만 사용되고 그 외의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년 08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지도교수 : 윤 종 록
박사과정 : 임 아 름
HP : 010-2936-8235
E-mail : aream11@nate.com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귀하가 청년창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취업의 어려움 ② 집안의 가업 승계 ③ 직장이 맞지 않아서
④ 직장이 없어서 ⑤ 생계유지 ⑥ 좋은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⑦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서 ⑧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Ⅱ. 다음은 청년창업가의 창업사전준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번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나는 창업 전에 창업교육을 받았다.					
2	나는 창업 전에 창업 아이템에 대한 사업성검토를 받았다.					
3	나는 창업 전에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았다.					
4	나는 창업 전에 창업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였다.					
5	나는 창업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였다.					
6	나는 창업 전에 소비자 트랜드를 분석하였다.					
7	나는 창업 전 관련 법률 및 행정규제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Ⅲ. 다음은 청년창업가의 역량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Ⅲ-1. 기업가적 역량

번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나는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잘 알고 있다.					
2	나는 한정된 기업의 경영자원을 적재적소에 잘배치할 수 있다.					
3	나는 사업성공을 위한 열정이 많다.					
4	나는 내게 적합한 업종 및 아이템을 식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5	나는 미래의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다.					
6	나는 필요한 사람과의 네트워킹을 잘 구축하고 있다					
7	나는 경쟁업체의 움직임을 신속히 파악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2. 관리적 역량

구분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사람들을 동기 부여함으로써 경영성과를 달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2	자원을 배분하고 과업을 조정시키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3	사람들을 감독하고 설득하며 지도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4	조직 장악역량이 뛰어나다.					
5	권한을 효율적으로 위임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6	조직구성원에게 비젼을 갖도록 전달할 수 있다.					

Ⅲ-3. 기술적 역량

번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경쟁사와 비교하여 기술 문제해결 능력이 있다					
2	경쟁사와 비교하여 기술인력 확보 및 활용 능력이 있다					
3	경쟁사와 비교하여 기술 혁신 능력이 있다					
4	기술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5	전문화된 분야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6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기술 전문가다.					
7	해당산업의 최고 기술 보유자다.					

Ⅲ-4. 창의적 역량

번호	항 목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새로운 아이디어를 남보다 잘 만든다.					
2	새로운 생각을 자주 만들어 내는 편이다..					
3	생각이 참신하다는 소리를 잘 듣는다.					
4	나만의 새로운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해본 경험이 많다					
5	대담하고 독창적으로 새로운 것을 잘 이용한다.					
6	문제를 해결할 때 나만의 독특한 방법을 잘 사용한다					
7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주변사람들을 놀라게 한 경험이 많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다음은 청년 창업가의 「창업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Ⅳ-1. 기회 발견

번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나는 창업 아이디어에 매우 신중하다					
2	나는 창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잠재적 아이디어 및 아이템에 대해 꾸준히 생각한다.					
3	나는 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친구 및 가족과 의논한다.					
4	나는 창업에 대해 같이 일하는 동료와 이야기를 자주 한다.					
5	나는 창업을 어떻게 시작할지에 대해서 교육 또는 세미나를 통해 배웠다					
6	나는 창업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구체화하기 위해 의논한다.					
7	나는 창업을 위한 기회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8	나는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Ⅳ-2. 기회활용

번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나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계획을 세웠다.					
2	나는 내가 보유한 자금을 창업에 투자했다.					
3	나는 창업 아이디어의 실행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 요청했다.					
4	나는 창업을 위한 장비를 구매하거나 빌렸다.					
5	나는 창업을 위해 같이 일할 인재를 모집했다.					
6	나는 창업을 시작하기 위해 시간확보를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예: 육아, 가사도움 등)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Ⅴ. 다음은 청년 창업 성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설문 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는 창업 초기보다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2	우리 회사는 창업 초기보다 고용인원이 증가하였다.					
3	우리 회사는 신제품 개발 능력이 증가하였다.					
4	우리 회사는 브랜드 인지도가 주요 경쟁사와 비교해 볼 때 높은 편이다.					

Ⅵ. 다음은 청년 창업가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창업 시 귀하의 나이는?
① 만19 ~25 ② 26 ~30 ③ 31 ~35 ④ 36 ~만39세

2. 청년 창업가의 최종학력은?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학사 ④ 석사 ⑤ 박사

3. 청년 창업가의 전공분야는?
① 경영, 경제학 ② 공학 ③ 자연과학
④ 예, 체능계열 ⑤ 의, 치, 약학계열

4. 청년 창업가의 이전 직장 근무경험은?
① 있다 ② 없다

5. 귀하의 업종은?
① 제조업 ② 서비스업 ③ 유통업 ④ IT업 ⑤ 지식서비스업 ⑥ 기타

6. 귀사의 소재는?
① 서울, 경기지역 ② 부산, 경남지역 ③ 대구, 영남지역
④ 광주, 전남지역 ⑤ 대전, 충청지역

대단히 감사 합니다.

Collection @ chosun